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국제금융센터 도입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정 헌 규

2020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국제금융센터 도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용 복

정 헌 규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정헌규의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 Focusing on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IFC)

Heonkyu 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Yong 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Development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범위	3
3. 연구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국내 금융산업 개관	5
제2절 국제금융센터	7
1. 국제금융센터 이해	7
1) 국제금융센터 개념	7
2) 국제금융센터 관련 제도	9
2.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	10
3. 국내외 국제금융센터	20
1) 국내 국제금융센터	20
2) 해외 국제금융센터	26
(1) 싱가포르	26
(2) 상하이	30
(3) 더블린	32
3) 국제금융센터 평가	35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정책	37
제4절 시사점	42
제3장 연구 방법	46
제1절 연구 설계	46
1. 연구 절차	46
2. 요인 구성	48
제2절 연구 조사 설계	49
1. 조사의 설계	49
2. 설문지 구성	51
제3절 분석 방법 : IPM Analysis	53
제4장 실증분석 결과	55
제1절 표본의 특성	55
제2절 요인의 평가	57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61
1. 분석결과	61
1) 요인별 필요도 분석	61
2) 그룹별 필요도 분석	63
(1) 금융/비금융 종사자 비교	63
(2) 제주/비제주 거주자 비교	72
2. 분석결과 시사점	79

제5장 결 론	8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84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85
참고문헌	87
부록	94
ABSTRACT	97

표 목 차

〈표 2-1〉 국제금융센터 분류	8
〈표 2-2〉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 구분(Abraham, 1993)	11
〈표 2-3〉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Bindemann, 1999)	12
〈표 2-4〉 국제금융센터 세부요인(Wong, 2012)	13
〈표 2-5〉 IMD Competitiveness Factors	14
〈표 2-6〉 Z/Yen Group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Factor	15
〈표 2-7〉 국제금융센터 세부 요인(최생림, 1994)	16
〈표 2-8〉 국제금융센터 세부 요인(김세진, 1999)	17
〈표 2-9〉 경쟁력 있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요인(재정경제부, 2003)	18
〈표 2-10〉 국제금융센터 성립요인(이병윤, 2007)	18
〈표 2-11〉 국제금융센터 성립요인 분류(장동한·송종한, 2004)	19
〈표 2-12〉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부산금융중심지 인센티브	23
〈표 2-13〉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부산금융중심지 인센티브	24
〈표 2-14〉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 현황	27
〈표 2-15〉 국제금융센터 순위	36
〈표 2-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현황	37
〈표 2-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점과제 세부내용	38
〈표 2-18〉 금융서비스산업의 SWOT 분석	40
〈표 2-19〉 단계적인 국제금융센터 발전 방향	42
〈표 3-1〉 데이터 샘플 수집 현황	51
〈표 3-2〉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	52
〈표 3-3〉 IPMA 영역 세부내용	54
〈표 4-1〉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표 4-2〉 내적일관성 신뢰도 요인 분석	57
〈표 4-3〉 외부적재치 요인 분석	58
〈표 4-4〉 AVE 요인분석	59
〈표 4-5〉 판별타당도 Fornell-Larcker criterion 요인 분석	60
〈표 4-6〉 판별타당도 HTMT 요인 분석	60
〈표 4-7〉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Complete)	61
〈표 4-8〉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Finance)	64
〈표 4-9〉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N/Finance)	66
〈표 4-10〉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권 종사자 차이분석 결과	71
〈표 4-11〉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Jeju)	72
〈표 4-12〉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N/Jeju)	74
〈표 4-13〉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 차이분석 결과	7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4
[그림 2-1]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단계	6
[그림 2-2]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39
[그림 2-3]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서비스산업 비전과 목표	41
[그림 3-1] 실증분석 연구 절차	47
[그림 3-2] 요인 구성	48
[그림 3-3] 설문조사 최소 샘플수 분석	50
[그림 3-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 Aternative Zoning	53
[그림 4-1]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Complete)	62
[그림 4-2]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Complete)	63
[그림 4-3]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Finance)	64
[그림 4-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Finance)	65
[그림 4-5]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N/Finance)	67
[그림 4-6]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N/Finance)	68
[그림 4-7]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Construct_Finance : N/Finance) ·	69
[그림 4-8]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Finance : N/Finance) ·	70
[그림 4-9]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Jeju)	72
[그림 4-10]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Jeju)	73
[그림 4-11]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N/Jeju)	74
[그림 4-12]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N/Jeju)	75
[그림 4-13]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Jeju : N/Jeju) ···	76
[그림 4-1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Jeju : N/Jeju) ··	7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산업경제,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 제주 지역 전 부문에 대한 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다(제주도, 2003).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몇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우선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 관광분야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증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에는 10%를 상회하는 관광객 증가율을 보여주며 2018년 기준 1,431만 명의 관광객 유입을 기록하게 되었다(제주관광공사, 2019). 이러한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69만 명을 기록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하지만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은 관광산업 이외의 의료·첨단·금융 등 계획초기에 구상된 다양한 산업에서는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질적 성장이 아닌 관광객 증가라는 양적 성장에만 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관광산업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이 국제자유도시에서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실제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주요 산업이 관광업과 금융업인 점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중 하나인 금융산업 또한 당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달리 어떠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산업이다. 금융

산업 육성 계획은 초기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종합계획에서는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도 금융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에 충분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금융산업의 발전은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금융산업의 성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상으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는 강기춘(1999), 강철준(2008), 류지민(2012) 등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질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초기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육성의 청사진으로 국제금융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국제금융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로 대신할 수 있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왜 국제금융센터의 설치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적 측면에서 계획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육성에 대하여 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고 학문적 관점과 제도적·정책적 관점을 종합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본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국제금융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는 첫 번째 연구 목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요인별 필요도를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즉 본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화된 자료수집 및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금융산업 및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논문, 서적, 그리고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작성한 정책보고서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연역적 접근을 실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요인들을 도출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과 제주이외지역의 산업 종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IPMA(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nalysis)를 활용하였다.

2. 연구 범위

변수의 범위는 국제금융센터 평가에 활용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금융산업 기반과 관련된 요인으로 한정하였다.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국제금융센터의 구성 및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되고 세분화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그 중 금융산업 기반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제주지역 및 제주지역 이외의 금융 및 기타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실시하여 2019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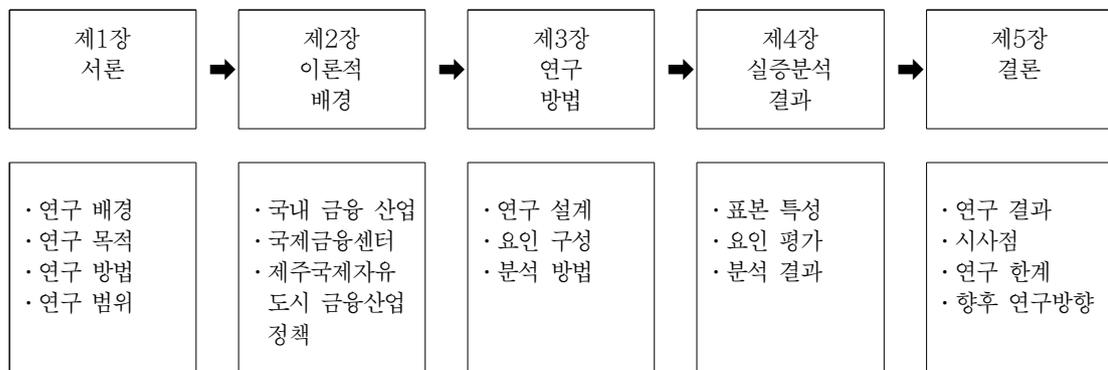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 및 서울 등 제주지역 이외를 구분하여 산업 종사자의 근무지인 금융기관 일반회사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적 범위는 회사원 전문직 등 산업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금융관련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1장은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하는 서론 부분이다. 2장은 금융산업과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다루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함께 다루고 있다. 3장은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 설계, 요인 구성, 분석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4장은 3장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표본의 특성과 요인 평가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내 금융산업 개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8단계에 이르는 발전단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강영훈, 2015).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산업은 1878년 6월 근대적인 은행인 제일은행 부산지점의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1945년까지를 태동기라 부를 수 있다.

해방과 함께 1959년까지는 현대적 금융제도 도입기로 한국은행권이 최초로 발행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증권거래소 등이 설립되었고 보험사, 증권사 등의 설립과 관련 협회 설립 등 금융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금융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였다(강영훈, 2015).

이후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금융산업의 기반 조성기로 서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 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산업에 필요한 기반들이 조성되는 시기였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금융실명거래제, 채권시장 대중화 방안, 주식장외시장개설 OECD 가입 등 금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게 된다(강영훈, 2015).

이후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으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구조조정기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은행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외환위기 극복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에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되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강영훈, 2015).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산업 관련 제도도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외화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등에 가입하게 된다. 더불어 불법 자금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우리 금융산업은 소비자 중심 금융패러다임의 확립기가 시작된다.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으며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일제강점기 외부에 의해 근대적 금융 산업이 도입된 이래 점진적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강영훈, 2015).

(그림 2-1)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단계

단계	시기	주요내용
태동기	1878년~1945년	최초의 근대적 은행 개설
현대적 금융제도 도입기	1946년~1959년	한국은행권 발행 한국산업은행 증권거래소 설립 최초의 생명보험사, 증권사 설립
금융산업의 기반 조성기	1960년~1979년	증권거래법 제정 보험업법 제정 수출입은행 설립
발전기	1980년~1996년	채권시장 대중화 방안 변동환율제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 OECD가입
구조조정기	1997년~2001년	부실금융기관 퇴출 은행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국제화 추진기	2002년~2007년	방카슈랑스 실행 동북아금융허브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	2008년~201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가입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불법자금유출 신고센터 설치
소비자 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2013년 이후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금융감독원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 핀테크 활성화 방안 마련

자료 : 강영훈 2015,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을 통한 울산의 금융도시 가능성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p.20 - p.22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제2절 국제금융센터

1. 국제금융센터 이해

1) 국제금융센터 개념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허브’, ‘국제금융중심지’ 등 금융산업 중심지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1970년대 Kindleberger에 의해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국제금융센터의 개념은 국내외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정의되어왔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국제금융센터의 유사개념 및 국제금융센터의 종류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Kindleberger(1974)는 금융업의 발전 과정 속에서 금융센터를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를 연계하여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장소로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금융센터에서 국제금융거래가 집중되어 국제금융센터가 된다고 하였다. Robert(1994)는 금융센터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금융중개업자들이 집중되어 금융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함께 존재하고 발전하는 장소로 설명하였다. 최생림(1994)은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국제금융센터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외국기업과의 또는 외국기업간의 금융중개가 일어나는 국제적인 금융센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거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금융센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로는 국제금융허브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허브(hub) 또한 중심을 뜻하며 이 역시 금융활동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국제금융센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혜진, 2012). 이외에도 ‘국제금융중심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국제금융센터와 동일한 의미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최생림(1994)은 국제금융

센터는 자본거래와 외환거래에 대한 조세제도나 규제, 경제규모, 경제발전의 수준, 경제활동의 수행정도에 따라 전통적 금융센터, 역외금융센터 부킹센터로 구분하였다. Dufey and Giddy(1978)는 금융센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발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센터로서 세계시장에서 은행, 증권사의 활동을 통해 자본을 수출하는 금융센터이며 두 번째는 국내외 거주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외뱅크센터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Jones(1992)는 글로벌금융센터, 지역금융센터, 서브지역금융센터로 국제금융센터를 구분하였다.

이처럼 국제금융센터 구분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기보다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관된 기준보다는 다양한 기준이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구분한 금융허브의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1〉 국제금융센터 분류

구분	특징	예시
글로벌금융센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실물경제 기반 성숙된 국내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의 발달 기축통화	- 런던 - 뉴욕
특화금융센터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소규모 경제 국내 및 주변 금융시장과 연관성이 강함	- 홍콩 - 에딘버러 - 싱가포르 - 시카고 - 취리히
역외금융센터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유치 국내금융시장과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	- 더블린
기장센터	타 지역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 처리 조세 피난처	- 케이만제도 - 바하마 - 라부안

자료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 재정경제부.

글로벌금융센터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센터로서 대규모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금융하부구조를 보유하고 성숙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또한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가 이에 해당한다(김은수, 2007).

특화금융센터는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특히 해당 국가 및 주변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이 강하며 글로벌금융센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 지역에서 발달된다(김은수, 2007). 이러한 특화금융센터는 정책적인 이유로 만들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홍콩 싱가포르가 있으며 프라이빗 बैं킹에 특화된 취리히나 선물시장에 특화된 시카고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역외금융센터는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 유치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다 주로 조세혜택 등을 이유로 이러한 금융거래유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국가의 국내금융시장과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기장센터가 있다. 조세피난처라고도 불리는 금융센터이며 주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기장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케이만 아일랜드, 바하마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국제금융센터 관련 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혁신을 화두로 성장 동력의 경쟁력 확충 및 금융산업 육성을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 그리고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추진하며 한국투자공사와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중심지법은 실물 경제와 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내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금융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금융중심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 5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법 제7조 및 제9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0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법 제13조)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중심지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집적을 통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4차 계획(2017년~2019년)까지 수립·시행되었으며 4차 계획의 주요내용은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내실화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 직접 촉진,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세부 과제로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은 서울의 경우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부산의 경우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내외 선행 연구 동향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주로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와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국제금융센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비교 분석하여 그 공통 요건을 추출해 내는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한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성립된 주요 국제금융센터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의 기준에 따라 개별 국제금융센터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연구가 또 다른 한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국제금융센터 관련 선행연구는 국제금융센터의 요인 도출 및 국제금융센터간의 비교와 분류를 주요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활용되는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 역시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의 성립 요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초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일컬어지는 Kindleberger(1974)도 금융센터의 발전과정을 런던과 뉴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

행들의 전문성과 숫자, 규모, 국제적 경험 등이 국제금융센터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였다.

Abraham(1993)은 <표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제금융센터의 요인을 생산요소, 인위적 환경, 규제 틀로 나누고 세부요인을 다시 13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2>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 구분(Abraham, 1993)

요인	세부요인	
생산요소	자본축적	- 외국자본유입 규모/국내저축 규모
	인적자원의 질	- 전문가/노동의 숙련도
	하부구조	- 교통통신시설 - 지리적 위치 - 시간대 - 해외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존재 - 금융기관 운영비
인위적 환경	거시경제	- 경제성장 - 통화가치 안정 - 인플레이션
	금융제도	- 은행비밀보장 - 금융활동의 중요성
	기술	- 거래결제/정보교류/거래시스템
	금융시장	- 해외자산 및 해외 부채 규모 - 외환시장/단기금융시장/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의 규모 - 외국금융기관의 규제 - 거래규모
	금융혁신	- 새로운 금융상품, 파생상품 거래 - 금융혁신에 대한 태도
	정치적 관행	- 정부개입/정치적 안정
	금융관행	- 주식시장의 자본화/채권시장의 중요도
규제 틀	재정규제	- 원천세/인지세/거래세/법인세
	금융규제	- 시장규제 정도 - 공개매수/자금세탁/외환거래 규제 - 증권거래소 형태
	수수료	- 수수료

이러한 Abraham의 요인 구분은 세부 요인까지 살펴볼 경우 상당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국제금융센터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후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센터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후 Bindemann(1999)은 국제금융센터의 요인으로 인적자원, 금융상품의 다양성, 국제적 은행의 존재 등을 나열하였으며 이는 <표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2-3〉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Bindemann, 1999)

요 인	
- 인적자원	- 은행업
- 시장의 다양성 및 크기	- 거래결제
- 시장규제	- 정보 순환
- 국제적 은행의 존재	- 강세통화
- 거래량	- 언어
- 하부구조	- 기술혁신
- 자본이용도	- 수수료
- 금융진통	- 재정규제
- 금융상품의 다양성	- 운영비용
- 정치적 안정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 Wong(2012)은 상하이와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를 비교 분석하며 국제금융센터의 요인을 접근성 및 지리적 위치, 인적자원, 경제 환경,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지원, 하부 구조, 규제 및 감독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표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2-4〉 국제금융센터 세부요인(Wong, 2012)

요인	세부요인
접근성 및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제조/생산 현장과 접근성 -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적절한 시간대 - 고속도로, 철도, 해로, 항공 등 다양한 국내/국제 운송 네트워크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된 인력의 공급 - 좋은 언어 능력 - 인적 자원의 낮은 비용 - 인적 자원의 높은 교육 수준 - 인적 자원 활용의 탄력성 - 근무 시간 - 노동의 질
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경제 성장 - 낮은 인플레이션 - 낮은 실업 - 외환 및 안정적인 환율 시장 - 저렴한 비용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정치 환경 - 적극적인 정부의 도시 홍보 - 낮은 세율
하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통신 네트워크 - 효율적인 결제 및 결제 시스템 - 효과적인 법률 시스템, 회계 시스템 및 기업 지배 구조
규제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 및 규제 - 금융 시장의 효과적인 감독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인과 함께 국제금융센터를 평가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융 관련 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가장 대표적인 평가 기관은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평가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으로써 〈표 2-5〉의 경쟁력 요인을 기준으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표 2-5〉 IMD Competitiveness Factors

요인	세부요인
Economic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mestic Economy - International Trade - International Investment - Employment - Prices
Government 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Finance - Tax Policy - Institutional Framework - Business Legislation - Societal Framework
Business 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ivity - Labor Market - Finance - Management Practices - Attitudes and Values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Infrastructure -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 Scientific Infrastructure - Health and Environment - Education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8 연구자 재구성

이와 더불어 영국 런던의 금융 전문 컨설팅 회사인 Z/Yen Group은 국제금융센터지수를 개발하여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센터 지수에 활용되는 주요 요인은 〈표 2-6〉과 같다.

〈표 2-6〉 Z/Yen Group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Factor

요인	세부요인
Business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ge Comparison Index - Government Effectiveness - Best Countries for Business - 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 Financial Secrecy Index - Rule of Law - Regulatory Quality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ontrol of Corruption - Regulatory Enforcemen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Location Index - Domestic Credit Provided by Banking Sector (% of GDP) - Global Connectedness Index - Total Net Assets of Regulated Open-End Funds
Human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 Net Financial Wealth - Citizens Domestic Purchasing Power -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 Cost of Living City Rankings - Quality of Living City Rankings - World Talent Rankings - Human Development Index
Infrastructure Fa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ice Occupancy Cost - Quality of Roads - Networked Readiness Index - JL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 Networked Society Index - Sustainable Cities Mobility Index - Quality of Domestic Transport Network -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 Open Data Barometer - 4G Availability %
Reputation Fa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Power City Index - Global Cities Index - Price Levels - IESE cities in motion index - Innovation Cities Global Index - Sustainable Cities Index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 Global Enabling Trade Report - Global Innovation Index - Best Countries

자료 : longfinance 웹사이트에서 연구자 재구성(<https://www.longfinance.net/programmes/financial-centre-futures/global-financial-centres-index>)

이러한 해외의 주요 연구와 평가에서 도출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금융제도, 인적자원, 하부구조 등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요인은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환경과 범위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하지 않는 공통적이 요인과 시대나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을 구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에 이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국내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는 평가적인 부분보다 성립 요건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많으며 또한 국제금융센터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연구보고서 등이 많은 점을 특징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동향 역시 연구의 목적에 크게 영향을 받은 바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국내 국제금융센터 연구의 초기에 최생림(1994)은 입지적 요소와 서비스 요소로 요인을 크게 구분하여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다.

〈표 2-7〉 국제금융센터 세부 요인(최생림, 1994)

요인	세부요인
입지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큰 시장규모 - 국제금융중심으로서의 기존 인식 - 금융공급 또는 수요가 큰 국가들의 근접성 - 시간대
서비스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정책과 같은 규제의 강도 - 조세 수준 - 전문인력의 확보 - 감독기관의 경험과 분별력 - 사회적 정치적 안정 - 편리한 교통통신시설

이러한 연구에 이어서 김세진(1999)은 보다 세분화된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을 제시하였다. 김세진(1999)은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을 크게 4가지로 나누었으며 이는 경제정치 여

건, 금융 여건, 하부구조 여건, 규제 여건이다. 이는 다시 22가지 세부요인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는 <표 2-8>와 같다.

<표 2-8> 국제금융센터 세부 요인(김세진, 1999)

요인	세부요인
경제정치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의 규모와 발전 속도 - 인플레이션, 환율, 저축 등 거시경제 여건 - 무역자본거래의 규모 - 다국적기업 주재 - 정치적 사회적 안정도
금융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의 심화정도 및 유동성 -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 해외금융기관의 주재 - 자본시장규모 및 상품의 다양성 - 결제제도 공시제도 등
하부구조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용 - 법인세 등록세 등 세금 -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 법률 회계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 항공 및 지상교통의 편리성 - 전문인적자본의 형성 교육제도 - 지리적 입지조건 시간대 생활환경 등
규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거래 자본이동 규제 - 지불준비 등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 신용정보 금융거래 비밀보장 - 외국인 취업 규제 등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추진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당시 재정경제부도 경쟁력 있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연구하며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게 된다.

〈표 2-9〉 경쟁력 있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요인(재정경제부, 2003)

요인	세부요인
정치적 안정, 선진화된 금융규제·감독 체계	- 명확한 법률체계, 감독관행 - 세금, 규제/행정 절차, 회계기준의 투명성
낮은 국가 위험 프리미엄	- 자본과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영어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풀	- 외국어 능통한 전문인력 존재 - 비자, 취업허가 등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여건	-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 낮은 세금과 생활비 등

이병윤(2007)은 인프라에 집중하여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건 3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2-10〉 국제금융센터 성립요인(이병윤, 2007)

요인	세부요인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제조업, 무역중심지 도시가 가능성이 높음
투명한 법체계 및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투자국의 법체계가 엄격하고 투명하여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하에서 투자수익의 정확한 실현이 가능 특히 철저한 계약집행(enforcement of contract)의 중요성을 강조
생활환경	영어 등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자유롭게 통용되고 글로벌 고급인력이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료시스템과 자연환경 등 뛰어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함

끝으로 장동한·송종한(2004)은 경제적 요소, 금융 요소, 정치사회적 요소, 하부구조 요소로 4가지 분류를 통하여 국제금융센터 성립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 2-10〉

과 같은 세부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1〉 국제금융센터 성립요인 분류(장동한·송종한, 2004)

요인	세부요인
경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 외환보유액 - 인플레이션 및 환율 - 무역 자본거래의 규모 - 외자도입 및 국내 저축규모
금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 - 해외자산 및 부채의 규모 - 자유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 해외 금융기관의 주재 - 결제시스템의 신속성 안정성 -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의 자유 - 금융감독기관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 - 낮은 금융거래 비용
정치사회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안정 및 정부의 낮은 간섭 - 노동의 탄력성과 사회적 안정 - 예측가능한 정책의 실행 - 외국기업에 대한 합리적 대우 -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사 주재
하부구조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임금수준과 부동산 임대료 -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세금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보 통신 시스템 - 법률회계제도의 국제적 통일성 - 외국인 취업의 자유 -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제도 - 국제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이처럼 국내 학자들의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금융허브 정책의 전후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국제금융센터 도입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던 당시 분위기에 따라 인프라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국제금융센터 성립요건으로 구분된 요인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세부요인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도 일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는 규제 감독과 같은 제도정책 요인(Abraham, Bindemann, Wong, 최생림, 김세진, 재정경제부, 이병윤, 장동한·송종한)과 인적자원 요인(Abraham, Bindemann, Wong, 최생림, 김세진, 재정경제부, 장동한·송종한)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대부분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인으로 포함이 되어있었다. 이와 함께 생활여건 및 생활환경 등 생활환경 요인(재정경제부, 이병윤, Abraham) 또한 여러 연구자가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끝으로 하부구조 또는 인프라 요인으로 하부시설 요인(Abraham, Bindemann, Wong, 김세진, 장동한·송종한) 또한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국제금융센터의 성립요인은 본 연구 제3장의 연구 설계에 있어서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자에 따라 동일한 세부요인을 다른 성립요인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능력과 교육수준 등을 Wong은 인적자원 요인에 포함시킨 반면 장동한·송종한은 하부구조 요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료의 경우 대부분의 학자가 하부구조 요소에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세부요인의 분류에 대하여 학자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3장의 연구 설계에서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의 세부요인은 이러한 학자들의 시각차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3) 국내외 국제금융센터

1) 국내 국제금융센터

국내 국제금융센터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따라 육성되어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2010년 금융위 고시를 통하여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대부분의 금융관련 기관과 금융회사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도 국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로 신규로 지정이 된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국제금융센터 육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산시는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박, 항만, 수산 등 특화된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단지를 구축하여,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의 비즈니스 및 국제금융 기능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진된 금융중심지 사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구축,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주요 선박해양 금융기관 및 선박금융 부서의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국내 금융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선박과 조선 관련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치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 소재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다(김병덕, 2018).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해양금융 활성화로서 선박 및 해운금융 특화 금융기관 유치, 선박 및 해운금융 전문기관 설립,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10)를 시작으로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11), 한국해양보증보험(주) 보험업 인가(2015.06)를 포함하여, 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을 담당할 한국선박해양(주) 설립(2017.04)등 선박 해양부문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집적을 추진해 왔다(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018).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의 두 번째는 파생금융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거래시스템 선진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개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02)을 시작으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업무(CCP) 개시(2014.03), 미니선물 및 미니옵션 시장 개설(2015.07) 등 파생상품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를 개소(2015.01)하는 등 다양한 파생금융 활성화를 이루었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유치였다. 이는 백업센터, 전산센터 구축을 통한 기반 강화, 외국회사(MS 등)의 데이터 센터 유치, 정부 및 금융기관의 백업센터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부산국제금융센터 구축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금융센터 기반 설립 단계로서 금융산업 육성 및 전반적인 설계 수립, 문현혁신도시 BIFC완공 및 공공기관의 이전, 금융인력 배양, 네트워크 강화, 국제화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핵심시설 이동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단계는 금융특화 배양 및 국제금융 기초시설 설립으로서 영어, 거주, 의료, 교

육, 문화 등 생활환경 기초시설을 설립하고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3단계는 금융 IT산업 개편 추진으로서 금융보안원(Financial Security Institute, FSI) 남부지점 설립 등 금융 IT산업 핵심부문의 부산으로의 이전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전자결제시스템의 3단계 이전 추진 및 INDEX센터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3단계에서는 부산항 재개발과 함께 해양, 조선업무 분야의 국제기관을 유치하고, 문현단지와 북항을 연결하는 국제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부산국제금융센터 구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시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도쿄, 카사블랑카 등 각도시의 금융중심지 추진기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김병덕, 2018).

이와 함께 부산금융중심지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표 2-12> 및 <표 2-13>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외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표 2-12〉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부산금융중심지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신설	한국내 본사/ 지역본부이전	한국내 지점 이전
		국외→부산		시역외→부산	
법인세 소득세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해당없음	
입지 보조금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 및 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 및 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고용 보조금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웹사이트에서 연구자 재구성(<http://bifc.kr/content/content.php?mnid=38>)

〈표 2-13〉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부산금융중심지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본사창업	지역본부/ 지점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 지점이전
				지역외→부산	
법인세 소득세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해당없음	
입지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 및 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 및 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 없음
고용 보조금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웹사이트에서 연구자 재구성(<http://bifc.kr/content/content.php?mnid=38>)

이러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는 금융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인 서비스금융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부산시 서비스금융과는 부산국제금융중심지 발전 방안 마련 및 해외금융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별도의 기관인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금융산업 조사 및 연구, 금융 관련 국제행사 개최, 금융인력 양성, 금융중심지 홍보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018).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래로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본부의 부재, 금융 관련 산업과의 활발한 연계 부족 등 전반적으로 금융생태계 조성이 미흡 상황이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 산업의 미흡, 해양(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등)관련 금융산업의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하여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중심지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얻기에는 공간적으로 제한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싱가포르 혹은 홍콩과 비교하여 여전히 업무환경이 선진화되지 못하였으며, 금융단지의 면적 역시 협소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 위치한 국제금융중심도시는 국제금융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여건 및 정주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나, 그에 비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개발이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런던, 싱가포르, 뉴욕, 홍콩, 상해 등 국제금융중심지에 버금가는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국제적 위상을 가진 금융중심지임과 동시에 관광명소라는 사실이다. 현재 부산 역시 관광명소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금융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문현지구의 매력도는 상위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융중심지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관광명소로서의 인프라 조성 또한 필요하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 전통적인 국제금융도시는 해당 국가의 산업수준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하다. 즉 이들 도시는 각국의 국내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에서 우위적 지위를 선점함으로써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 또한 항만 물류, 조선, 해운, 문화 등 강한 산업분야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경

쟁력을 키우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을 앞세운다면,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는 아직 국제금융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금융관련 전문인력 배출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금융관련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국내금융, 소매금융 등에 종사하여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등 최첨단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 종사자들을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선박, 해양, 자산운용 등 특화금융 분야에서 실무 및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병덕, 2018).

이처럼 부산국제금융중심지는 정책적으로 추진된 국내 금융중심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산국제금융중심지가 추진되어 오면서 이룩한 성과와 미흡한 점 및 한계점 등 그 진행 과정을 통하여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2) 해외 국제금융센터

해외 주요 국제금융센터는 전통적으로 뉴욕과 런던으로 대표되는 종합국제금융센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는 역사와 규모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온 여타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하기 힘든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특화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국제금융센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쿄, 홍콩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센터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과 뉴욕이 모든 금융산업에 있어서 세계 전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국제금융센터임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이며 금융산업 각 부분별 위상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중개 부문에 있어서 Asian Dollar Market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외환거래와 국제상업은행 관련 업무에 있어서 홍콩보다 발전되어 있으나 국내 경제 규모와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홍콩에 비하여 그 발전의 정도가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오혜진, 2012).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싱가포르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및 외국계 금융기관을 파악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즉 국제금융센터로서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척도는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수와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 2-14>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2-14>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 현황

구분	2009	2014	2018년 1분기
은행	114	124	127
국내법인	6	5	4
외국법인	108	119	123
Asian Currency Units	161	159	155
보험회사	158	177	184
금융자문사	73	58	64
자본시장라이센스	221	443	669

자료 : 싱가포르 통화청(MAS), 2018, Annual Report. 연구자 재구성

싱가포르에는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127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123개는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84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증권업 등 자본시장 관련 라이선스 또한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669개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한 데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금융중심지 정책에 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는 홍콩과 같은 점이며 이에 반하여 홍콩과 다른 세금으로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싱가포르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하여 과세되는 물품서비스세(7%), 외국인 고용자 부담금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세하여 17%로 낮추어져 있는 상황이며 이는 홍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통하여 홍콩

과 경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정학 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크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의 깊은 수심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무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항이 일찍부터 개발되었고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국제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상업금융이 싱가포르에서는 일찍부터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은 싱가포르를 국제 금융서비스, 물류센터, 커뮤니케이션 센터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융성하게 되는데 큰 조건으로 작용하였다(오혜진, 2012).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인 런던과 뉴욕의 사이에 위치하여 런던과 뉴욕의 중간 시간대에 있게 되어 런던과 뉴욕의 시장 마감 시간 이후에도 외환 거래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위한 지역본부를 설치할 유인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적인 장점 또한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다국적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제금융센터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지역 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성장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불안은 국제 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중동지역에서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였던 레바논이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몰락한 사례를 보면 정치사회 안정이 국제금융센터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 싱가포르가 독립한 이후 반부패 개혁 및 경제개발 정책을 펼친 인민행동당의 장기 집권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왔다(오혜진, 2012). 이와 함께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활동을 통하여 주변국가로 부터도 정치적 안정을 확고히 하여 왔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가 존재하는 복합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회관습을 인정하고 민족 간 평등 기반으로 하여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민 통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민족 간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함께 유지하여 계층 간의 갈등도 완화 하는 노력도 함께 추구하였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국제금융센터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싱가포르는 중개무역항에서 시작된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수의 이민자들의 유입이 과거부터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기인하여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적 풍토가 일찍부터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국제금융센터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정책을 폈다. 독립이후 집권 초기에 정부 예산의 1/3을 교육부분에 투자할 정도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제조업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강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인적자원에서 살펴 볼 때 싱가포르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성장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을 들 수 있다. 오랜 기간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결과 싱가포르 국민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영어사용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내의 민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민족 고유의 언어를 인정하며 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원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학교 교육에서 영어의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싱가포르의 영어 사용 인구는 더욱 증가 하게 되었다(오혜진, 2012).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금융센터 육성 정책을 1960년대 말부터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뉴욕, 런던, 도쿄에 이어 세계적인 국제외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의 성장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국제금융센터는 오랜 경제중심지로서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위상이 높아진 지역들이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로 성장을 한 다른 종합 국제금융센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3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책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다른 국가들보다 낮게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금융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외국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정책은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국제금융업에는 최대한의 자유와 경쟁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유지하면서 국내금융업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 정책은 효율적인 감독정책의 수립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주도하는 금융 감독 정책은 홍콩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후 홍콩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도산 사태 이후 적정한

금융 감독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 발전 요인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제금융센터이며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잘 조합되어 성공적으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적절한 성장 환경이 갖추어졌을 경우 정책적 도움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국제금융센터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상하이

20세기 초, 상하이는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중국의 최고 금융 중심지였다. 1936년 상하이에는 영국 HSBC, 미국 시티은행과 체이스은행, 프랑스 크레디트 아그리콜, 일본 스미토모 미쓰에이 은행 등 27개 외국은행이 있었는데, 이는 상하이 전체 은행의 30%에 해당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는 중국과 외국계 기업 주식과 채권이 많이 거래되었고, 상하이 외환시장에는 15개의 외화 환전이 가능하였다(오혜진, 2012).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상하이는 잿빛 공업도시로 탈바꿈했다. 금융시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외국 은행과 기업인은 추방되었으며, 금융은 정부의 장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상하이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을 거쳐 비로소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후 채권시장, 외환시장, 금시장, 어음시장, 증권시장, 선물시장, 보험시장이 상하이에서 열렸으며, 금융시장 인프라가 그 기반이 되었다. 2009년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은 국가 전략이 되었다(오혜진, 2012).

현재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 첫째, 상하이는 완전한 금융 시장 시스템을 구축했고 가장 완전한 금융 시장을 가진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 직접금융의 85% 이상이 상하이 금융시장에서 나온다. 2016년 상하이의 증권거래소 가치는 세계 4위였다. 2017년 상하이 금거래소는 거래소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금거래소가 되었다. 둘째, 상하이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클러스터 영역이 되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상하이에는 1519개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중 30%가 외국 기관이다. 셋째, 상하이는 많은 혁신 정책으로 중국의 재정 개방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2013년에 설립된 상하이자유무역지대(SPFTZ)는 자본계정 자유화, 위안화의 국제화 등 재정개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는 외환 관리의 단순화, 선박 보험 상품의 등록 시스템 등 95건의 금융혁신 사

례가 발표되었는데, 20개 이상의 혁신 정책이 중국의 다른 분야로 확대되었다. 넷째, 상하이
의 재정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하이 지방 정부는 오래 전부터 효율성과 투명성
이 가장 높은 지방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상하이 금융중재소가 설
립되었고 상하이 금융법원이 2018년 설립되었다.

이처럼 상하이는 정부주도하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상하이만의 몇 가지 경쟁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우선 정치적으로 상하이는 중국정부의 자국 내 금융허브 육성 전략에 따라 성장하게 되었
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상하이는 정치적 전략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로 지정되고 성장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정부의 추진 정책과 함께 같은 시기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상하이
의 국제금융센터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세계 2위의 GDP 규모와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 등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이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
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상하이는 중국내에서 수많은 인적자원이 몰려드는 지역으로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이 쉽게 형성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중국내 인적자원의 전문 금융지식과 영어 구사 등 국제
금융센터에 최적화된 전문인력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의 생활환경은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급
스러운 생활환경, 쇼핑센터, 의료시설 등 많은 주거 지원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며 부동산도 중
국 최초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 국제금융센터 성장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교육환경 의료서비스 등에서 일부 홍콩, 싱
가포르 보다 뒤쳐진 면이 있다고 하겠다(오혜진, 2012).

이외에도 교통 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국제금융센터로서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상하이는 갖
추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금융센터 세계 순위 5위가 말해주듯 국
제금융센터로서 빠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하이는 이미 중국의 금융 중심이다. 중국은 고속개발 40년을 거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고, 국제금융센터 1위를 차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상하
이도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한 경우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환

경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역시 정부 주도하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은 환경적이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3) 더블린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FDI의 유치정책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부문이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더블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4월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조세유인정책을 제공하여 도시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더블린의 중심부 CHD(Custom House Docks) 지역에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 IFSC) 설치를 발표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198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1990년에 첫 번째 건물인 West Block을 완공한 이후 CHD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현재 IFSC는 15.8ha의 면적에 2백만 평방피트의 사무실공간과 호텔, 음식점, 주거 공간, 소매점 그리고 탁아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국립대학 캠퍼스도 소재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러한 하드웨어와 더불어 더블린 IFSC를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국제금융서비스 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더블린 IFSC가 은행업, 보험, 증권발행, 뮤추얼펀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은행, 금융중개기관 및 금융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박광수, 2018).

이러한 노력의 결과 IFSC는 더블린 IFSC에는 2018년 현재 500개 이상의 입주기업, 38,000명의 직접고용인원, 아일랜드 전체 다국적 노동자 가운데 10% 고용 및 아일랜드 GDP의 7.4%를 기여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들과 세계 50대 은행, 세계 20대 보험회사가 IFSC에 입주해 있다.

더블린 IFSC가 발전하게 된 요인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세계적인 국제금융중심지인 런던에 인접한 지리적 근접성 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과 다양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더블린 IFSC의 성공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 국제금융시장의 허브인 런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박광수, 2018). 더블린은 런던과 같은 시간대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프론트 업무(front-office service)는 런던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백오피스업무(back-office

service)는 세제혜택 등으로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블린 IFSC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살펴보면 EU 내 헤지펀드 거래의 85%, 파생상품 거래의 74%가 런던에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거래량 기준으로 하루 거래량이 2조 달러 규모인 외환시장은 세계 최고이다. 세계 1위의 뉴욕금융시장이 미국 경제규모에 따라 성장하였다면 런던의 경우는 대외교역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업이 발달했다. 현재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은 해상보험료 수입, 국제 채권 거래, 장외 파생상품 거래, 외환 거래, 국가 간 은행 대출 등에서 세계 1위다. 더블린은 런던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국제금융의 허브로서 런던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공존과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광수, 2018).

둘째, 더블린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박광수, 2018). 양질의 고급노동력에 대한 이용가능성은 국제금융서비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FSC지역의 반경 4마일 이내에 IFSC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전문화된 교육을 하는 대학이 3개나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1,400명이 회계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는 등 많은 인력이 변호사, 보험전문가, 통역사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150년의 전통을 가진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더블린이 보유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은 더블린 IFSC에서의 기업활동 비용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아일랜드의 금융부문 노동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점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젊은층의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더불어 더블린 IFSC가 설립초기부터 청년실업에 해소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풍부한 노동력은 노동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영국을 비롯한 EU국가의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박광수, 2018).

셋째, 통신 및 다양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박광수, 2018). 아일랜드 정부는 IFSC 개발의 핵심요소인 통신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아일랜드 전역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IFSC의 통신시설을 광통신을 이용한 최첨단설비로 24시간 가동하도록 하였다. 더블린 IFSC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터넷 통신기술과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금융거래 단계별로 분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사무실 공간 2백만 평방피트, 거주지 85만 평방피트, 쇼핑공간 5만 평방피트, 그리고 문화공간 7만 평방피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였다(박광수, 2018).

더블린 IFSC는 역외 거주자만을 고객으로 하는 금융센터는 아니나 설립 당시 주 영업대상을 비거주자로 하고, 거래 대상 통화도 외국 통화로 한정하여, 외국투자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IFSC를 통해 아일랜드의 국내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즉,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게 입주자격을 주어 특별 혜택을 주는 대신 비거주자 및 외국통화 대상으로 거래를 한정시킴으로써 아일랜드 국내 금융시장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으면서도 국내 은행의 국제화도 도모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IFSC의 입주과정에도 관여하여 승인위원회(CAC)의 입주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금융거래 감독, 위험관리 등을 사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일랜드는 더블린 IFSC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FSC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거래 수행 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IFSC 입주 혜택관리를 통해 더블린을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고 자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특히 IFSC에 많은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EU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The Finance Act 1995에서 규정해 놓은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해외 활동에 의한 모든 수입에 대한 비과세 적용조항을 모든 금융기관이 아닌 신규고용 창출과 일정 규모이상의 자본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블린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국제금융업무의 주체를 더블린에 있는 본사의 자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세 면제제도는 은행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IFSC 내 지역본부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IFSC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러한 조세 유인책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IFSC는 입주 기업에 대해 감독당국의 Open door 정책 감독당국이 네거티브 시스템 등 다양한 비조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박광수, 2018).

이처럼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국제금융센터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더블린의 경우는 싱가포르, 상하이와 달린 인근 지역의 런던을 성장 환경으로 삼아 발전하였다는 특이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특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제금융센터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다른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할 때 공통적 요소와 함께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요인을 잘 발견하여 극대화 하였을 때 더 성공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제금융센터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종합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정부 주도로 육성한 특화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국제금융센터가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는 공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밀집해있다는 의미가 아닌 해당 지역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제금융센터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가 있다.

글로벌금융센터지수는 2007년 런던시(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지원을 받아 처음 발행되었다. 당시에 평가된 국제금융센터는 46개였으며 3년 후 런던시에서 카타르로 지원이 넘어갔을 때 75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112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싱크탱크인 Z/Yen Group에 의해서 1년에 2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평가를 위하여 글로벌금융센터지수는 133개의 요인을 사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센터의 순위 등급 등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 발표는 GFCI26으로 2019년 9월 발표 되었으며 발표된 순위는 <표 2-1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 2-15〉 국제금융센터 순위

순위	2019년 9월(GFCI26)		2019년 3월(GFCI25)		순위 변동
	국제금융센터	점수	순위	점수	
1	뉴욕	790	1	794	-
2	런던	773	2	787	-
3	홍콩	771	3	783	-
4	싱가포르	762	4	772	-
5	상하이	761	5	770	-
6	도쿄	757	6	756	-
7	베이징	748	9	738	+2
8	두바이	740	12	733	+4
9	선전	739	14	730	+5
10	시드니	738	11	736	+1
11	토론토	737	7	755	-4
12	샌프란시스코	736	16	727	+4
13	로스앤젤레스	735	17	724	+4
14	취리히	734	8	739	-6
15	프랑크푸르트	733	10	737	-5
16	시카고	732	20	717	+4
17	파리	72	27	699	+10
18	보스톤	727	13	732	-5
19	멜버른	720	15	729	-4
20	몬트리올	716	18	722	-2
21	카사블랑카	714	22	712	+1
22	텔아비브	713	23	710	+1
23	광저우	711	24	708	+1
24	밴쿠버	710	19	721	-5
25	룩셈부르크	708	30	691	+5
26	제네바	706	28	698	+2
27	오사카	705	31	690	+4
28	워싱턴	702	32	689	+4
29	에딘버러	701	35	674	+6
30	케이만제도	699	21	713	-9
31	웰링턴	693	40	647	+9
32	아부다비	690	26	702	-6
33	칭다오	688	29	694	-4
34	타이페이	687	34	676	-
35	버뮤다	680	25	705	-10
36	서울	677	36	668	-
37	암스테르담	675	41	646	+4
38	더블린	674	38	658	-

자료 : longfinance 웹사이트 연구자 재구성(<https://www.longfinance.net/programmes/financial-centre-futures/global-financial-centres-index/gfci-26-explore-data>)

〈표 2-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뉴욕과 런던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도쿄와 홍콩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특화 국제금융센터인 싱가포르와 상하이도 최상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위안에 포함된 다수의 국제금융센터가 아시아권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금융센터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간의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을 목표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2002년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차 계획(2002년~2011년)과 2차 계획(2012년~2021년) 그리고 수정계획(2016년~2021년) 까지 3차례에 걸쳐 수립·시행되었다. 각각의 종합계획에 나타난 금융산업 관련 계획 내용 고찰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겠다.

〈표 2-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현황

구분	계획기간	수립 시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2년 ~ 2011년	2003년 2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2년 ~ 2021년	2011년 11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6년 ~ 2021년	2017년 2월

자료 : 연구자 작성

〈표 2-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점과제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본 목표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 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	
중점 과제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통, 항만 시설 확충 및 운송체계 개선 -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물류산업의 선진화 추진 - 사이버제주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 -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아·태권 국제교류 거점화 사업,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사업 추진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문화의 정체성 구현 사업, 제주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자원화,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추진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 건설 -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확충 및 운영·관리의 체계화, 스포츠산업 육성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능력 배양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평생교육 체제 확립 -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 및 교류기반 조성, 과학기술 진흥 행정체계 정비 - 지식산업 기반구축, 문화산업·바이오산업 육성 - 지역특화형 중·소 제조업 육성, 개방형 벤처집적지 조성 및 육성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금융기능의 확충과 역외금융센터 도약 기반 조성
	경계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구조 개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전개, 농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진 -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구조 조정, 품질경쟁력 제고, 지속적 수확량 증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축종별 차별화된 육성계획 수립, 청정축산지역 지정 및 위생관리 체계 마련,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생산·기술 기반 구축 -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여촌 건설,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 도모,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품질·고소득 양식산업 육성, 신해양 관광메카 실현 - 임산자원의 보전과 개발, 임업의 복합산업화, 고소득 임산물 기반 확충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기반 조성, 평생 도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국제자유도시 보건의료 인프라 제공 - 공공복지서비스 조직과 민간복지자원간의 연계 활성화 도모, 사회참여형 개방적 복지시스템 정착, 통합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효율적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적극적 구조·구급 활동 강화, 통합적 소방방재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계획 후개발'체제 구축,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계획 수립,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 도모,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유기적 공간체계 정립 -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유기적 상호 의존성 제고,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의 기능 강화, 주민의 기초수요 충족에 역점을 둔 도서지역 개발 -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건설업의 건설화 도모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및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연안통합 관리체계 구축, 연안해역관리인제 도입, 해양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 부존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 광역 용수 공급체계의 완성, 용수이용의 합리화와 대체 수자원 확보, 지하수 자원의 과학적 보전·관리체계 구축 -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대체 에너지 활용·개발, 에너지 수급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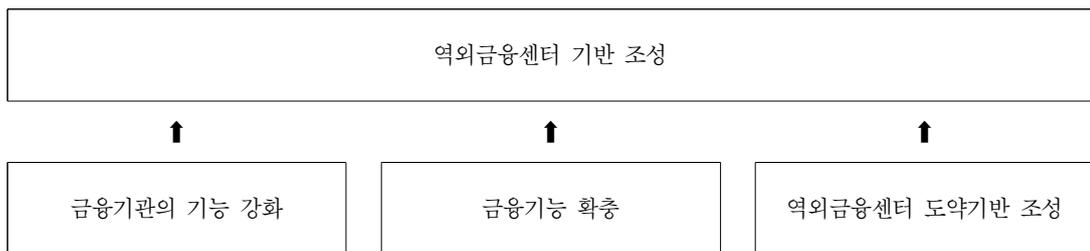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3. 제주도. 연구자 제작성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인간·환경·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7대 중점과제와 5대 기본전략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관련 정책은 7대 중점과제중 하나인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의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인 금융서비스업의 기능강화 정책에 포함되어있다(제주도, 2003).

금융서비스업의 기능 강화는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지역민의 복지를 신장시키는 데 방해요인이 된다는 인식 아래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 여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자본을 축적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산업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구상에서 수립되었다.

그래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지역금융기관의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능의 확충과 역외금융 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두었다.

[그림 2-2]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3. 제주도. 연구자 재구성

이러한 금융서비스업 기능강화를 위해 세부 사업계획으로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강화, BIS비율과 자율적인 위험관리, 금융기관 대형화 및 전문가 양성, 지역 밀착형 금융기법의 활용, 디지털 금융기법의 보편화와 대응, 지식경영기법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역외금융센터 설립과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 지정 육성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제주도, 2003).

이어서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를 비전으로 삼고 대중국 공략을 기초전략으로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를 일반전략으로

로 하는 1+3 전략 틀을 구상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1).

이러한 전략 아래 수립된 부문별 발전계획에서 금융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발전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1차 종합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되었다.

우선 2차 계획에서는 SWOT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서비스산업 추진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SWOT 분석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금융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고 발전 잠재력도 높지만 기존 금융 산업의 발달이 지체된 데다 관련 인프라도 미흡하다고 분석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변국 및 국내 지역 간 금융 발전을 위한 경쟁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협요인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2-18〉 금융서비스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활동에 유리한 입지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높은 대도시 접근성 · 금융 산업 발달이 국제자유도시의 이상을 실현하기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산업 발달은 자본의 이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 금융 활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 -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 높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 - 여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금융 산업의 기반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미만 - 지역 내 자금 수요가 부족하여 자금이 지역 외로 유출 · 금융 산업 발달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전문 인력, 금융 관련 지원 인프라 등이 미흡 - 주거환경, 문화시설, 언어 등 생활여건도 미흡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주변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동북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 상위권을 형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유층 자산 급성장 · 동북아 지역의 개발 수요는 막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이 저조 - 10년간 동북아 지역의 개발금융수요는 1,500억 달러 · 신흥국 개발에 대한 각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본원력을 제고 - 향후 개도국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 기회가 확대 - 개발과 관련된 성장 기회가 확대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주변국 사이에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 · 서울 및 부산이 이미 금융 중심지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가 특화금융 중심지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 · 역외금융에 대한 규제 및 중앙 정부와 입장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는 새로운 역외금융센터 설립에 대해 부정적 -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기 어려움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북한과의 긴장 상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 유동성 공급국과 투자 대상국 등 갈등의 소지가 상존 -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

자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1. 제주특별자치도.

이러한 제2차 종합계획은 SWOT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그림 2-3]과 같이 도출한다.

[그림 2-3]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서비스산업 비전과 목표

2021년 비전	제주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금융 산업	
목표	개발금융 중심지	아시아 개발은행 지부 또는 동북아 개발은행 유치
	금융 산업 부가가치	GRDP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7.6%
	금융 전문 인력	1,000명 양성 및 유치

자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1.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종합계획의 금융서비스산업 세부 계획으로는 제주투자은행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비즈니스 금융센터 건립이 있다.

우선 제주투자은행 설립은 '제주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인프라펀드 및 지역발전펀드 등을 조성하여 인프라 시설 및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펀드는 지역 인프라 시설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활용하고 지역개발펀드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해 주로 창업기업 및 개인에게 지원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주투자은행 및 펀드 설립은 민간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용을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되는 효과와 제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므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구현에 적합하다는 기대효과가 제시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11).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 계획은 2021년까지 매년 100명 씩 총 1천 명의 금융 인력을 확보를 목표로 하여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 과정을 활용하여 금융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전문 대학의 제주 학부를 유치하며 해외 유명 금융 관련 MBA과정(Business school)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금융센터 건립의 경우 제주 비즈니스 금융센터(Jeju Business

Financial Center) 건물을 건립하여 제주투자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 관련 기관 등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인프라 개발금융, 장기적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또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동북아 지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역외금융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통하여 제2차 종합계획은 단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외금융센터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변화 측면에서도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새로운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고 평가 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역외금융 중심지로 발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중장기적,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국제금융 업무를 확대하면서 금융센터로서의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현 단계에서는 제도 개선,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전제로 국제선박 등록 및 캡티브 보험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표 2-19〉 단계적인 국제금융센터 발전 방향

구분	제도개선(1단계)	인력/비용 투입(2단계)	전문 인력/인프라 구축(3단계)
국내	· 기존업무 확대(선박금융 등) · 국내금융(캡티브보험 등)	· 1단계 업무 · 국내금융(캡티브은행 등)	· 2단계 업무와 동일
동북아시아 글로벌	· 업무 확대(국제선박 등록 등) · 국제금융(해외자금 유치)	· 국제금융(법인 및 펀드 등록, 프라이빗뱅킹)	· 국제금융(종합금융서비스, 지주회사 등록)

자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1. 제주특별자치도.

이러한 단계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업무로는 첫째, 국제선박 등록 업무는 편의치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여타 국가에 등록된 동북아시아 소유 선박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둘째, 캡티브 보험은 보험 산업의 발전 및 보험료의 해외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업무는 프라이빗 뱅킹은 제주를 방문하는 국제관광

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센터의 주요 업무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된 감독기구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영위되는 소수 금융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수행 목적에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1).

이러한 제2차 종합계획은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제1차 종합계획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제1차 종합계획의 핵심 주제였던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시 검토하여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장기 추진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대신 제주투자은행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서비스업 발전계획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SWOT 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등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금융서비스산업 추진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2차 종합계획이 제1차 종합계획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금융서비스산업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수립된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차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도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그 결과 제2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된 제주투자은행과 금융전문인력 육성, 비즈니스 금융센터 건립과 같은 금융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은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이라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다.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제주지역 부동산 신탁 사업과 제주지역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넓은 범위의 금융서비스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2차 종합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산업은 수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정계획의 내용은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을 제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외금융센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종합계획에서부터 제주투자은행으로 대표되는 제2차 종합계획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더 이상 어떠한 금융서비스산업 정책을 내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제4절 시사점

지금까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흐름을 시작으로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분류 형태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 국제금융센터가 추진되고 성장하는 예를 국내의 경우는 부산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으며 국외의 경우는 싱가포르, 상하이, 더블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된 금융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문헌연구를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는 오랜 시간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과 분류방법 그리고 구성요소가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며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제금융센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관심 분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금융센터는 그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활발하게 연구 및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은 정책적 선택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주변 환경의 도움이 특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중국경제의 성장이 함께 조합되어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는 성공하였으며,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결합하여 오늘날의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더블린의 경우도 런던 배후지역이라는 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합쳐져 특화 국제금융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된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없이 중단되었으며 결국 금융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타 산업과 달리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은 구체적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공과 실패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는 정책 실패가 아닌 정책 미실행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에서 상품 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이동인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태도는 앞서 살펴본 국

내외 사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반면에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의미에 맞게 사람의 이동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상품의 이동인 금융시장의 발전은 국제자유도시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은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결합이라고 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라는 위상과 함께 이미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인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장점까지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요소의 부재로 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은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요소에 대한 실증분석을 연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국내외 국제금융센터의 사례를 통하여 국제금융센터의 성장과 관련한 환경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하였던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이 환경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요소의 부재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제주에서 금융서비스산업은 필요한 산업이고 실제 정책적으로 추진 계획도 수립되었으나 어떠한 정책의 실패가 아닌 정책의 미실행으로 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금융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미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절차는 연구주제를 명확히 선정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앞서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논의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국제금융센터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주제 선정 이후 이러한 연구주체에 맞는 연구에 사용될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요인은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된 국제자유도시의 구성요인에서 공통되는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요인 추출에 이어 설문지 설계 및 설문지 작성, 설문지 검토 등 설문지 구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설문지 관련 내용 또한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설문지 구성에 이어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검증 및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검증은 불성실한 답변 사례 확인 및 연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구성 요인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데이터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러한 연구 진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실증분석은 마무리되며 이러한 연구진행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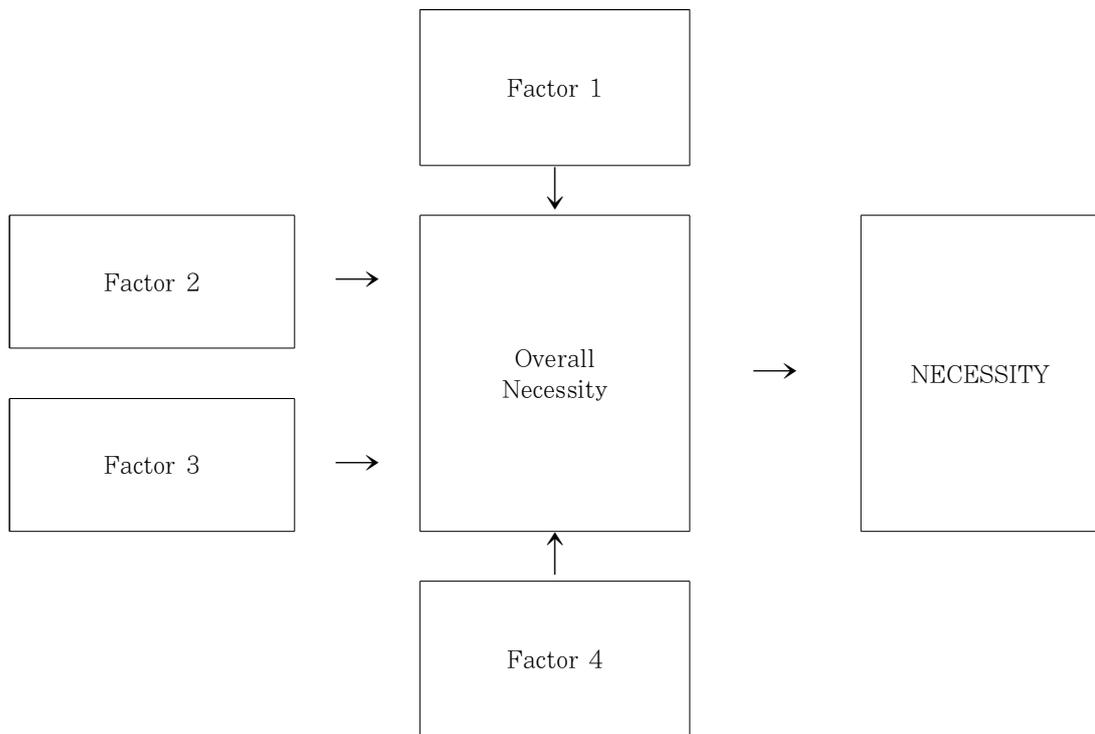
[그림 3-1] 실증분석 연구 절차



2. 요인 구성

본 논문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금융산업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의 구성요인 중 어떠한 요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요인인지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요인을 [그림 3-2]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2] 요인 구성



본 요인 구성은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국제금융센터 요인(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 필요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구성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요인의 기반구축 필요성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요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요인이고 더 나아가 그 중 우선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제2절 연구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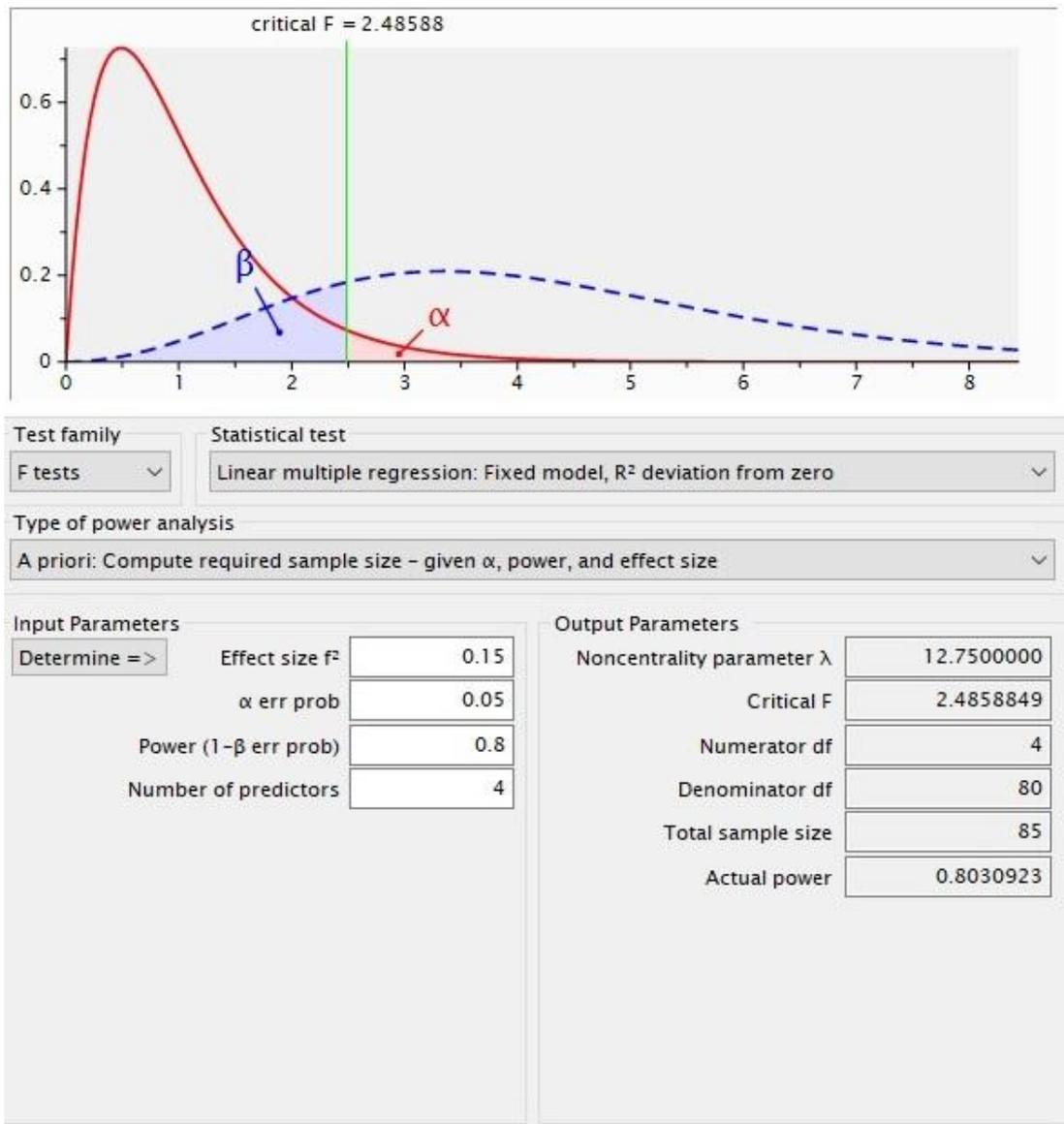
1. 조사의 설계

데이터 수집은 설문지를 통한 1대1 면접방식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 항에서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설문 대상은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산업계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며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금융업 종사자와 비금융업 종사자를 구분하여 설문대상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에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역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분석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거주지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자를 제주도 지역 거주자와 제주도 지역 이외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보다 정확한 샘플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샘플수 확인 프로그램인 G*Power3.194를 활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통계적 검증력 80%, 중간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5%에서 연구모형의 분석요소가 4개인 본 연구의 최소표본의 크기는 [그림 3-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85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연구의 최소 샘플수는 비교분석을 위한 개별 그룹당 최소 85개 이상을 수집해야 하며 전체 샘플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므로 전체 샘플은 최소 17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림 3-3) 설문조사 최소 샘플수 분석



자료 : G*Power3.194 프로그램 연구자 작성

이를 참조하여 금융업/비금융업, 제주지역/제주지역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그룹별 최소 샘플을 100개 이상 수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311개의 샘플을 수집하였으며 답변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샘플 6개를 제외한 305개의 샘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룹별 최종 확정된 샘플의 수는 <표 3-1>과 같으며 샘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장 표본의 특성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3-1〉 데이터 샘플 수집 현황

구분	직업 관련			거주지관련		
	금융관련	금융관련이외	합계	제주지역	제주지역이외	합계
샘플수(개)	102	203	305	149	156	305
비율(%)	33.4	66.6	100	48.9	51.1	100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설문조사가 제주지역과 제주지역 이외에서 함께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설문의 구성

설문 문항은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다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문항은 요인 구성에서 제시된 4개의 구성요소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사용된 세부 요인은 〈표 3-2〉와 같다.

세부 요인은 국제금융센터 구성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반 하여 구성 요인과 세부 요인에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세부 요인에 대한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기반 구축요인에 대한 각 세부 요인의 필요성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표 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부 요인은 구성 요인 별로 5개씩 추출되었으며 4번째 구성 요인인 하부시설 요인의 경우에만 4개의 세부 요인을 추출하여 총 19개의 세부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 요인의 선행연구 상 출처는 〈표 3-2〉에 표시된 바와 같다. 요인 분석 상 전체적인 필요성(overall necessity)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구축이 전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으며 본 연구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직업 및 거주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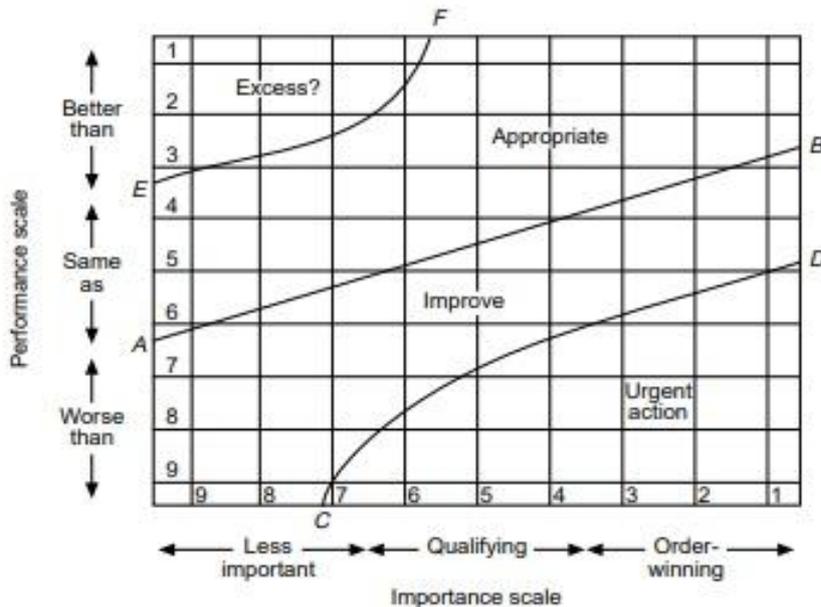
〈표 3-2〉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

요인	세부요인
Factor 1 제도·정책 요인	F1-1 : 금융업 관련 명확한 법체계(Wong 2012) F1-2 : 투명한 금융감독 체계(Bindemann 1999) F1-3 : 우호적 투자환경(최생림 1994) F1-4 :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Wong 2012) F1-5 : 지자체의 추진 의지(Wong 2012)
Factor 2 인적자원 요인	F2-1 : 금융에 대한 전문성(Abraham 1993) F2-2 : 외국어 구사 능력(Wong 2012) F2-3 : 자유로운 인적자원 활용(Wong 2012) F2-4 : 금융 관련 교육 수준(Wong 2012) F2-5 : 적절한 급여 수준(김세진 1999)
Factor 3 생활환경 요인	F3-1 : 금융에 대한 지역의 인식(Abraham 1993) F3-2 : 학교 병원 등 생활 시설(재정경제부 2003) F3-3 : 통신교통 인프라(Abraham 1993) F3-4 : 적정 수준의 물가(재정경제부 2003) F3-5 : 쾌적한 자연환경(이병윤 2007)
Factor 4 하부시설 요인	F4-1 : 항공 이용의 편의성(Wong 2012) F4-2 : 적정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김세진 1999) F4-3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시스템(GFCI) F4-4 :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 조성(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3절 분석 방법 : IPM Analysis

각 요인들의 필요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IPMA(Importance Performance Matrix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IPMA는 개별 요인들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여 매트릭스(좌표평면)에 이를 표시하고 표시된 위치에 따라 개별 요인들의 성능 수준, 시급도,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IPMA는 단순히 중요도와 수행도에 따른 분석뿐만 아니라 중요도와 만족도, 중요도와 필요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IPMA에서 중요한 것은 좌표평면 상에서 개별 요인들의 위치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좌표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Slack(1994)은 이러한 IPMA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대안적인 좌표 구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림 3-4]와 같으며 개별 구역에 대한 분석은 <표 3-5>와 같다.

[그림 3-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 Aternative Zoning



자료 : Slack. 1994.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s a Determinant of Improvement Priority. IJOPM 14,5

〈표 3-3〉 IPMA 영역 세부내용

구역	세부 내용
Appropriate	이 구역의 하단은 최소 성능 경계선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자는 운영을 하고자 하게 된다. 그리고 개별 요인들의 성능을 이 경계선 이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모든 개선 프로그램의 1단계 목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은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Improve	“Appropriate” 영역의 하한선 아래에 있는 모든 경쟁 요인은 개선의 대상에 해당된다. 성능이 나쁘지만 덜 중요한 매트릭스의 왼쪽 하단에 있는 요인을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은 개선 요인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다만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아닐 수 있다.
Urgent Action	가장 중요한 것은 “Urgent Action” 영역에 놓여 있는 모든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고객에 대한 중요성으로 볼 때 달성해야 할 성과보다 훨씬 낮아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가 직접적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운영 성과에 대한 측면이다. 따라서 단기 목표는 적어도 “Improve” 영역까지 이 영역에 존재하는 경쟁 요소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중기적으로 그들은 “Appropriate” 영역의 하한선을 넘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cess?	이 영역에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면 달성한 성과가 보증되는 것 보다 훨씬 낮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이 예를 들어 “긴급 조치” 영역에 속하는 자원과 같이 더 어려운 요소로 전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료 : Slack. 1994.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s a Determinant of Improvement Priority. IJOPM 14,5 연구자 재구성

이러한 개별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PMA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수치화 하여 좌표평면에 표시하고 이를 IPMA를 통하여 각 구성요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IPMA를 위하여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에도 SmartPLS 3.0을 사용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표본의 특성

본 조사는 제주지역과 제주지역이외에서 일대일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총 샘플의 수는 311개였다. 이중 무응답이 현저히 많은 불성실 응답 샘플 6부를 제외한 305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총 유효표본 305명에 대한 성별은 남성이 209명(68.5%)으로 여성 96명(31.5%)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6명(8.5%), 30대가 131명(43.0%), 40대가 103명(33.8%), 50대가 31명(10.2%), 60대 이상이 14명(4.5%)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를 합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임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직업을 살펴보면 금융 관련 회사원이 102명(33.4%), 금융 이외 회사원이 79명(25.9%), 전문직 종사자가 32명(10.5%), 자영업자가 26명(8.5%), 공무원이 24명(7.9%)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히 회사원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끝으로 거주지는 제주지역 거주자가 149명(48.9%)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가 156명(51.1%)으로 제주지역과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유효표본 305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9	68.5
	여성	96	31.5
	합계	305	100.0
연령	20대	26	8.5
	30대	131	43.0
	40대	103	33.8
	50대	31	10.2
	60대 이상	14	4.5
	합계	305	100.0
직업	회사원(금융 관련)	102	33.4
	회사원(금융 이외)	79	25.9
	전문직	32	10.5
	자영업	26	8.5
	공무원	24	7.9
	기타	42	13.8
	합계	305	100.0
거주지	제주 지역	149	48.9
	제주 지역 이외	156	51.1
	합계	305	100.0

제2절 요인의 평가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요인의 분석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분석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3.0을 사용하여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와 D-H rho_A(ρA) 그리고 Composite Reliability(CR)를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타당도는 외부적재치, AVE를 활용한 집중 타당도 평가와 Fornell-Larcker criterion, HTMT를 활용한 판별 타당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에 대하여 <표 4-2>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 내적일관성 신뢰도 요인 분석

	Cronbach's Alpha	rho _A	Composite Reliability
Factor 1	0.851	0.860	0.893
Factor 2	0.863	0.877	0.901
Factor 3	0.854	0.871	0.894
Factor 4	0.781	0.813	0.855

내적일관성 신뢰도에서 크론바하 알파의 일반적인 수용범위는 0.6~0.9 이다. 0.6 미만은 작은 신뢰도,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 그리고 0.8~0.9 이면 높은 신뢰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각각의 요인들은 <표 4-2>와 같이 모두 0.7 이상의 바람직한 신뢰도와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D-H rho_A(ρA)의 경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요인들의 D-H rho_A(ρA)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의 일반적인 수용범위는 0.6~0.9 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요인들은 모두 높

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내적일관성 신뢰도에서 각각의 요인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집중타당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중타당도는 동일한 잠재변수를 서로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별 세부요인들에 대한 외부적재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부적재치가 0.7 이상이면 해당 측정변수는 유지하며 0.4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측정변수를 제거해야한다. 본 연구의 외부적재치 요인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으며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요인이 모두 0.7 이상의 외부적재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외부적재치 요인 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1-1	0.807			
F1-2	0.733			
F1-3	0.855			
F1-4	0.722			
F1-5	0.835			
F2-1		0.828		
F2-2		0.811		
F2-3		0.837		
F2-4		0.830		
F2-5		0.703		
F3-1			0.702	
F3-2			0.785	
F3-3			0.817	
F3-4			0.824	
F3-5			0.831	
F4-1				0.770
F4-2				0.742
F4-3				0.770
F4-4				0.803

집중타당도를 확인하는 또 다른 요인 분석방법은 평균분산추출(AVE)을 확인하는 것이다. AVE가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잠재변수의 AVE가 평균적으로 0.5이상이라는 것은 그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의 분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AVE 값은 <표 4-4>와 같으며 모두 0.5 이상의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AVE 요인분석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actor 1	0.628
Factor 2	0.646
Factor 3	0.629
Factor 4	0.596

끝으로 판별타당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Fornell-Larcker criterion에 의한 판별타당도 측정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커야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보다 오히려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도 요인 분석은 <표 4-5>와 같으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보다 AVE의 제곱근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판별타당도 Fornell-Larcker criterion 요인 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0.792			
Factor 2	0.658	0.803		
Factor 3	0.547	0.659	0.793	
Factor 4	0.598	0.608	0.639	0.772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방법인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가 있다. 이는 Fornell-Larcker criterion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판별 타당도 평가 기준이다. HTMT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별타당도를 판단하는데 측정값이 모두 0.85 미만일 때 HTMT_{.85}에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하는 기준과 측정값이 모두 0.9 미만일 때 HTMT_{.90}에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HTMT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6〉과 같으며 HTMT의 값이 모두 0.85미만이므로 임계치를 0.85로 하고 있는 HTMT_{.85}에서 모든 요인 간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표 4-6〉 판별타당도 HTMT 요인 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Factor 2	0.780			
Factor 3	0.661	0.787		
Factor 4	0.738	0.763	0.803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1) 요인별 필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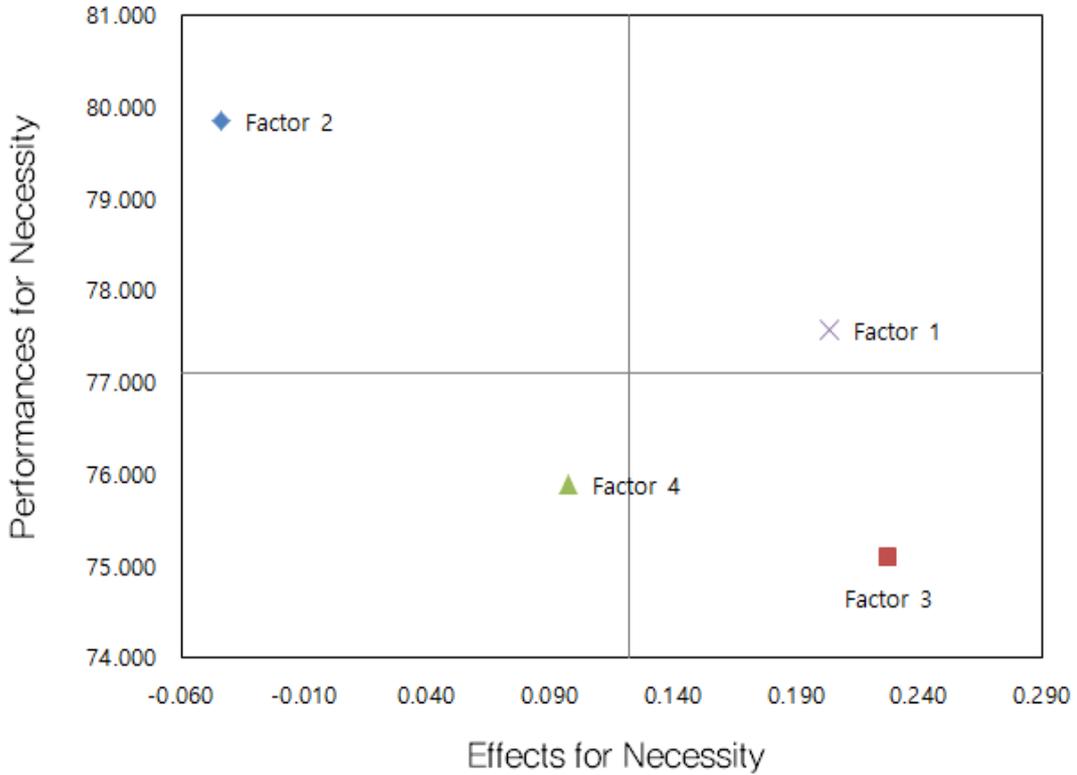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 수치는 <표 4-7> 과 같다.

<표 4-7>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Complete)

	Overall_Necessity	Performances
Factor 1	0.204	77.561
Factor 2	-0.043	79.845
Factor 3	0.228	75.097
Factor 4	0.098	75.887

이를 매트릭스 분석을 위해 좌표평면에 표시하면 [그림 4-1]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actor 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actor 1과 Factor 4, 마지막으로 Factor 2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Compl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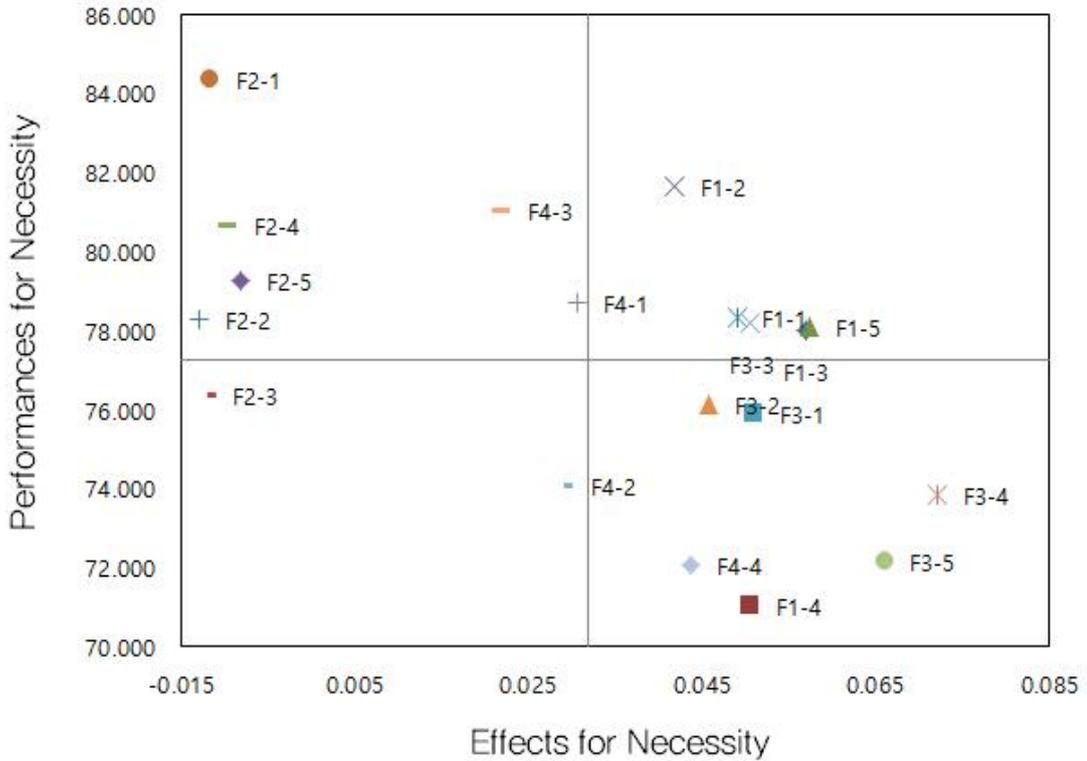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요인은 생활환경 요인이며 그 다음은 제도·정책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 전체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세부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3-5, F1-4, F3-4, F4-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3-1, F3-2, F1-3 등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F2-1의 경우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세부요인은 쾌적한 자연환경, 지자체의 금융서비스산업 추진의지, 적정수준의 물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조성과 금융에 대한 호의적인 지역의 인식 등이 다음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세부 요인의 가중치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Factor 3에 포함된 세부 요인들이 필요도 우선순위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Complete)



2) 그룹별 필요도 분석

(1) 금융/비금융 종사자 비교

서론에서 밝혔듯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수행하고자 했던 분석중 하나는 그룹 간 비교분석이다. 이를 위하여 샘플을 금융관련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로 나누었으며 추가적으로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금융관련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작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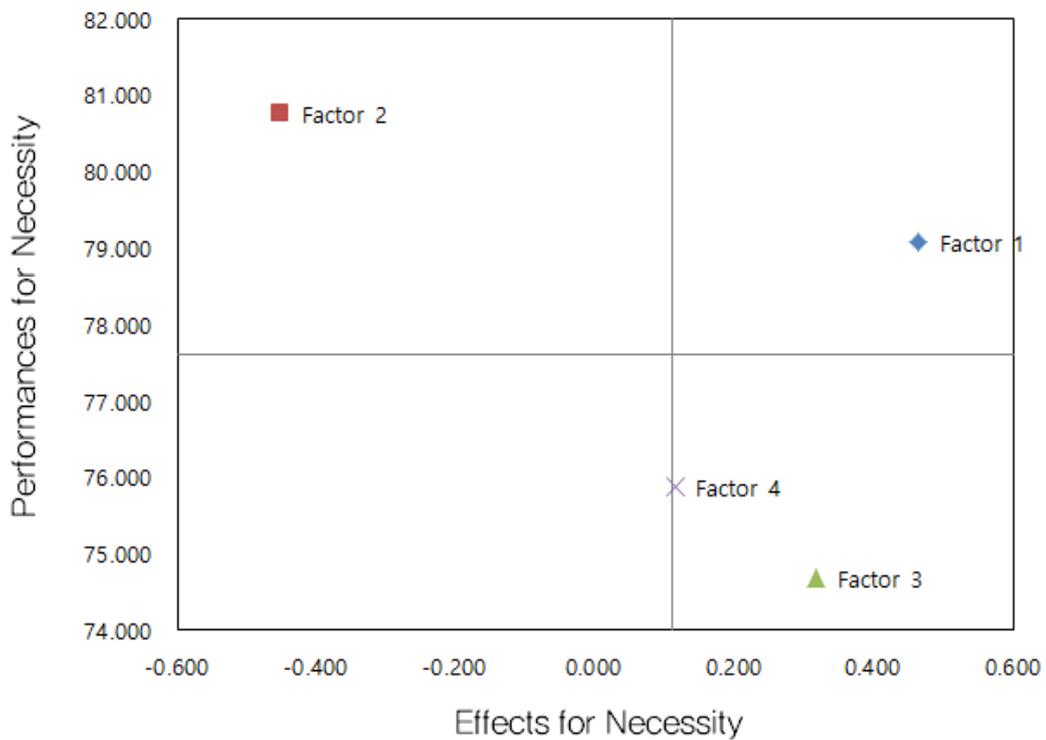
금융관련 종사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 수치는 <표 4-8>과 같다.

〈표 4-8〉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Finance)

	Performances	Overall_Necessity
Factor 1	79.090	0.464
Factor 2	80.758	-0.452
Factor 3	74.691	0.318
Factor 4	75.887	0.114

금융관련 종사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actor 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actor 4와 Factor 1이, 마지막으로 Factor 2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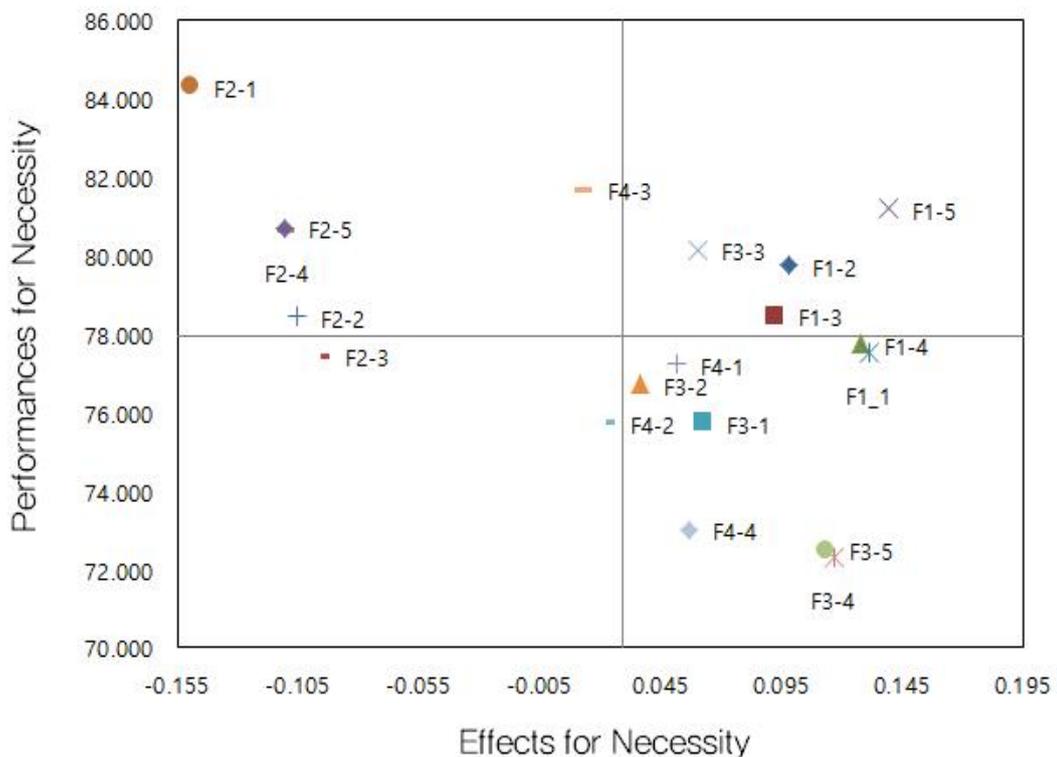
(그림 4-3)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Finance)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요인은 생활환경 요인이며 그 다음은 하부시설 요인과 제도·정책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하부시설 요인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온 결과이다. 즉 금융 관련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금융관련 종사자의 세부 요인 전체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세부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3-4, F3-5, F4-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3-1, F1-1, F1-4 등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F2-1의 경우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Finance)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세부 요인은 적정수준의 물가, 쾌적한 자연환경,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조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에 대한

호의적인 지역의 인식, 지자체의 금융서비스산업 추진의지, 금융업 관련 명확한 법체계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에 있어서도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도·정책 요인보다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도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비금융 종사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금융관련 종사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 수치는 <표 4-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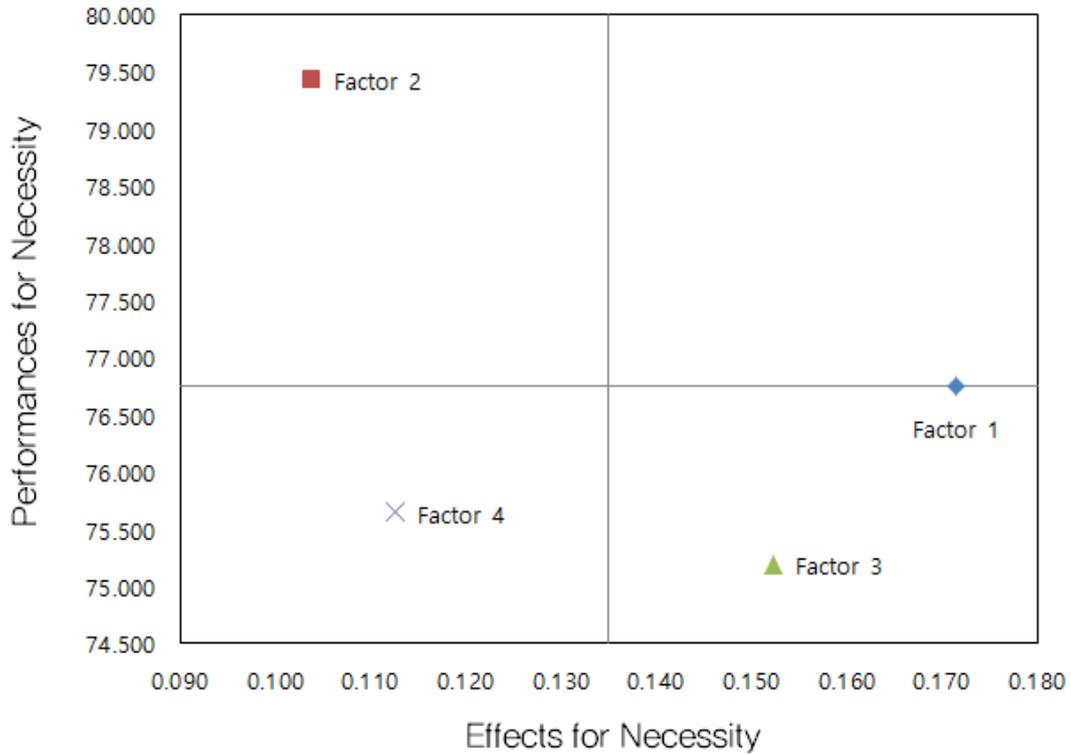
<표 4-9>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N/Finance)

	Performances	Overall_Necessity
Factor 1	76.748	0.172
Factor 2	79.431	0.104
Factor 3	75.198	0.152
Factor 4	75.649	0.113

비금융 종사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actor 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actor 1과 Factor 4가, 마지막으로 Factor 2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요인은 생활환경 요인이며 그 다음은 제도·정책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비슷한 형태의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금융 관련 종사자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Factor 1과 Factor 4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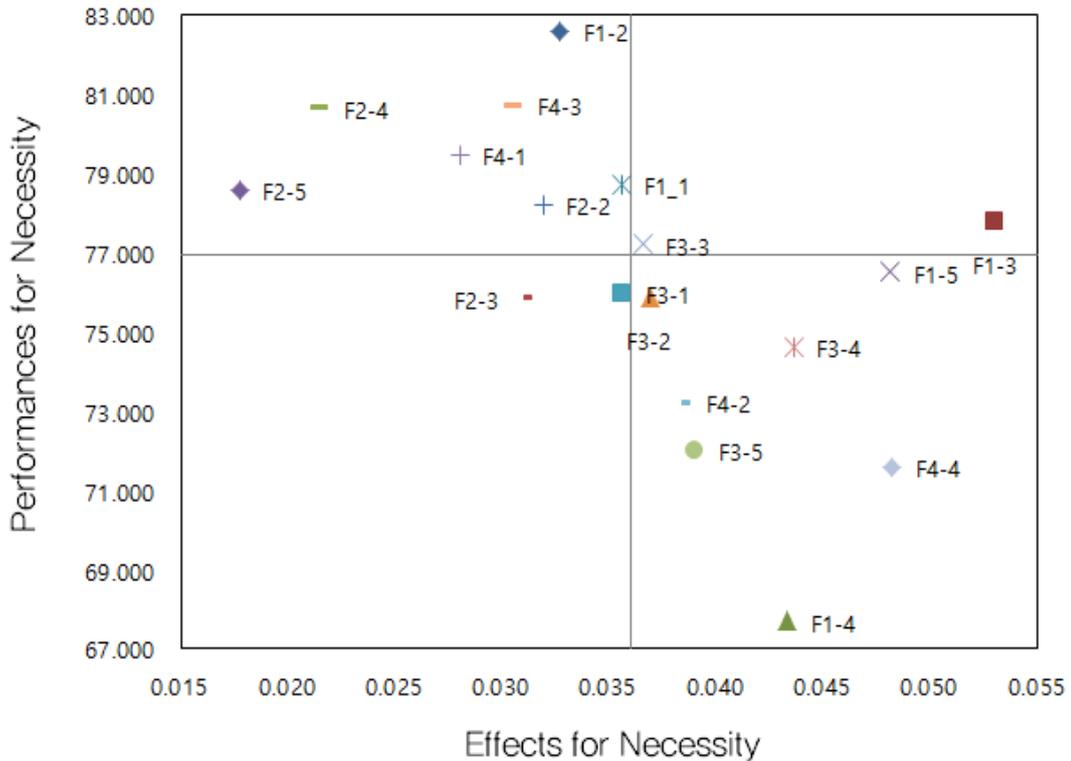
(그림 4-5) Importance - Performance Matrix(Construct_N/Finance)



비금융 종사자의 세부 요인 전체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세부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1-4, F4-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3-5, F4-2, F3-4 등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F2-4의 경우는 필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가장 필요한 세부 요인은 금융업 관련 명확한 법체계,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조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적정수준의 부동산 임대료, 적정수준의 물가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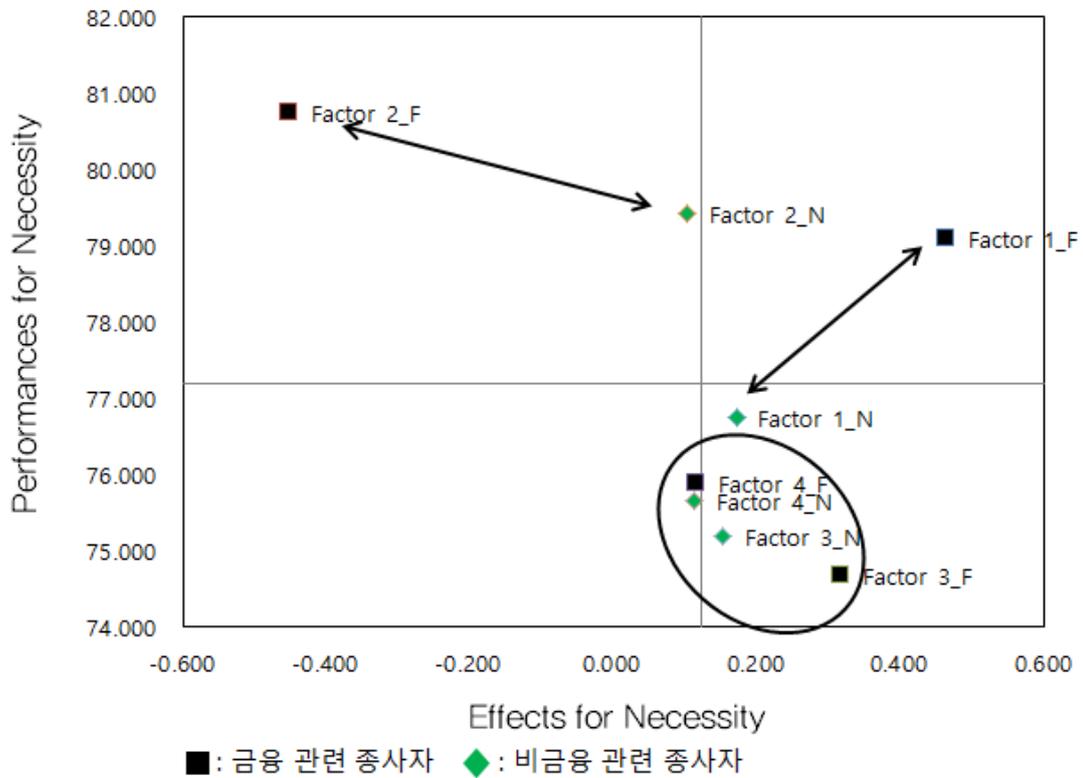
세부요인에 있어서도 비금융 종사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금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N/Finance)



이러한 금융관련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4-8]과 같다. [그림 4-7]은 금융관련 종사자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금융 종사자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으로 두 그룹의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좌표에서 보듯이 Factor 3과 Factor 4는 두 그룹 모두 유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Factor 1과 Factor 2의 위치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그룹 모두 생활환경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어느 정도 일치하나 제도·정치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금융권 종사자에 비하여 비금융권 종사자가 제도·정책 요인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더 높게 판단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요인에 대하여도 비금융권 종사자가 금융권 종사자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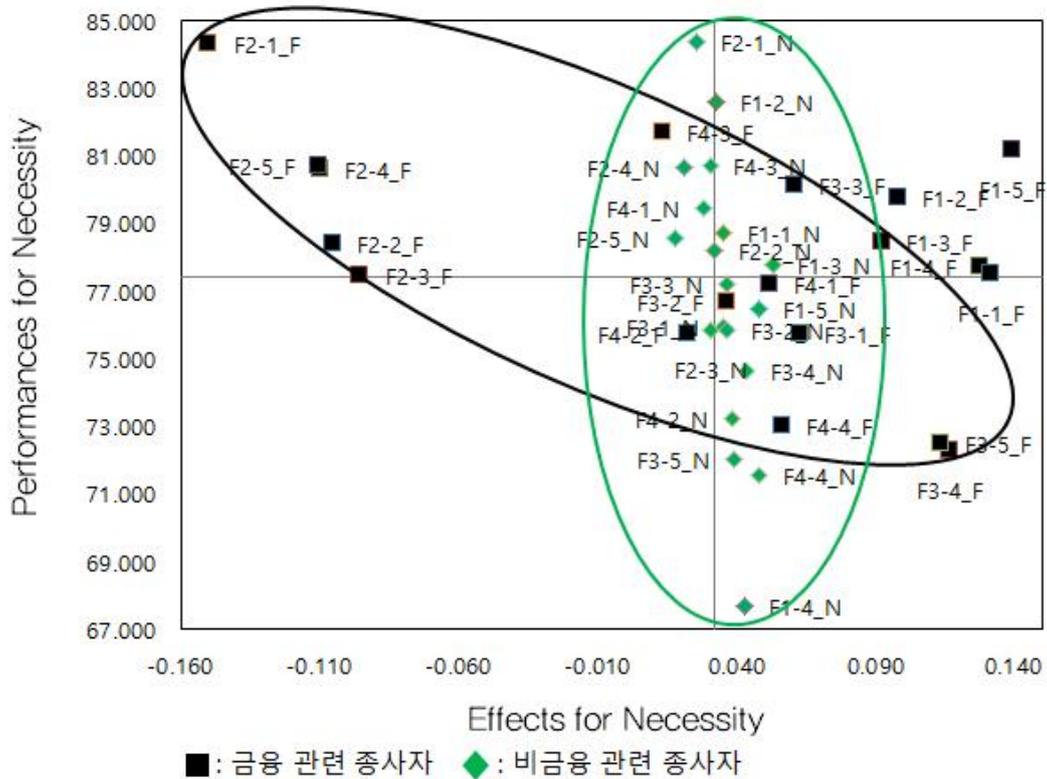
(그림 4-7)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Construct_Finance : N/Finance)



이어서 세부요인에 대한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겠다. 세부 요인에 대한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의 요인별 분석 결과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그림 4-8]과 같다. 금융관련 종사자의 경우 요인 분포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비금융 종사자는 좌표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로 길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즉 금융관련 종사자의 경우 세부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금융 종사자의 경우 필요성 정도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있기보다 개선 수준 혹은 적정 수준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두 집단 간의 경향성 차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의 필요정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권 종사자가 이러한 필요 정도에 대한 보다 선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Finance : N/Finance)



그러나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전체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두 집단 간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이 나타났다.

T-검정에 있어서는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분산의 동질성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이용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결과 두 집단에 대한 모분산이 유사할 경우에는 결과표에서 등분산이 가정된다는 점을 활용하고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은 F값으로 결정한다. 분석결과에 F값의 유의확률이 기준치보다 클 경우, 즉, $P > 0.05$ 인 경우에는 두 분산이 유의하지 않아 등분산이 가정된다. 그리고 $P < 0.05$ 일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된다(정충영·최이규, 2011).

〈표 4-10〉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권 종사자 차이분석 결과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Factor 1	등분산을 가정함	1.276	0.260	1.194	303	0.2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255	231.218	0.211
Factor 2	등분산을 가정함	0.628	0.429	0.450	303	0.65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453	206.458	0.651
Factor 3	등분산을 가정함	0.545	0.461	0.183	303	0.85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189	221.690	0.850
Factor 4	등분산을 가정함	0.008	0.931	0.362	303	0.71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370	214.729	0.712

위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Factor 1의 경우를 살펴보면 F값이 1.276이고 유의확률값이 0.260이므로 $P > 0.05$ 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됨을 보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T값은 1.194, 자유도 303(전체 샘플수 -2)에서 양쪽검정의 유의 확률값이 0.233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권 종사자간에 Factor 1의 필요도 정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Factor 2, Factor 3, Factor 4의 경우도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집단 간의 차이는 IPMA에서 확인되는 바와 달리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제주/비제주 거주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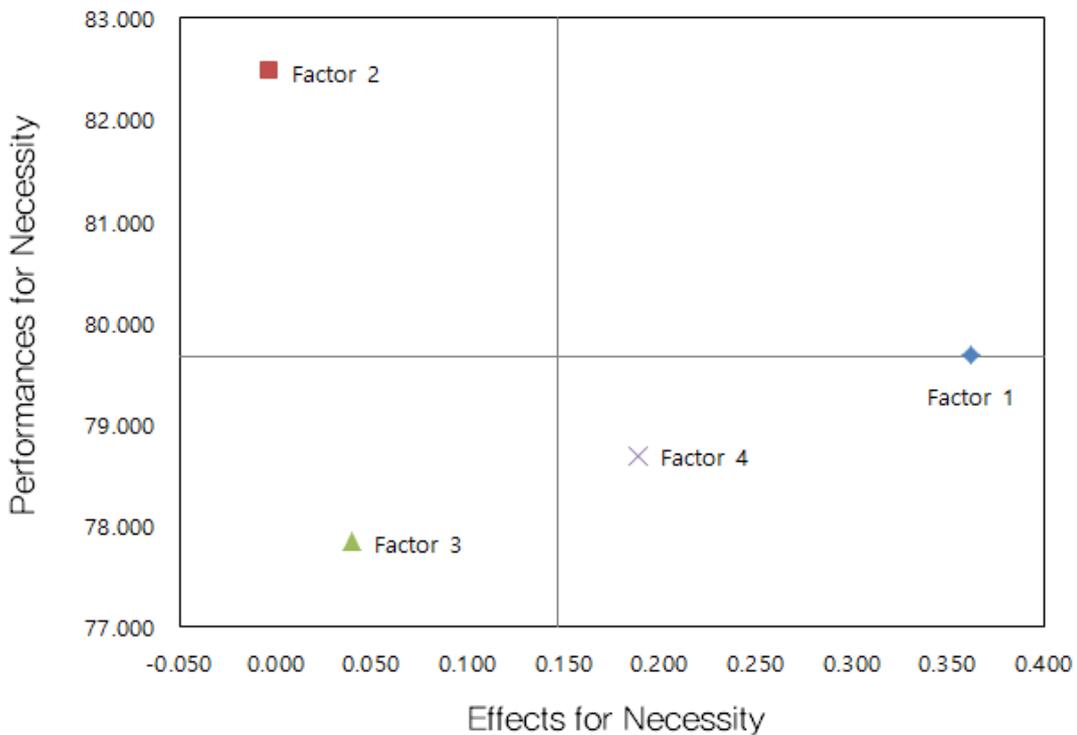
제주지역 거주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 수치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Jeju)

	Performances	Overall_Necessity
Factor 1	79.678	0.362
Factor 2	82.475	-0.003
Factor 3	77.845	0.040
Factor 4	78.691	0.189

제주지역 거주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9]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actor 1과 Factor 4와 Factor 3이 유사한 정도로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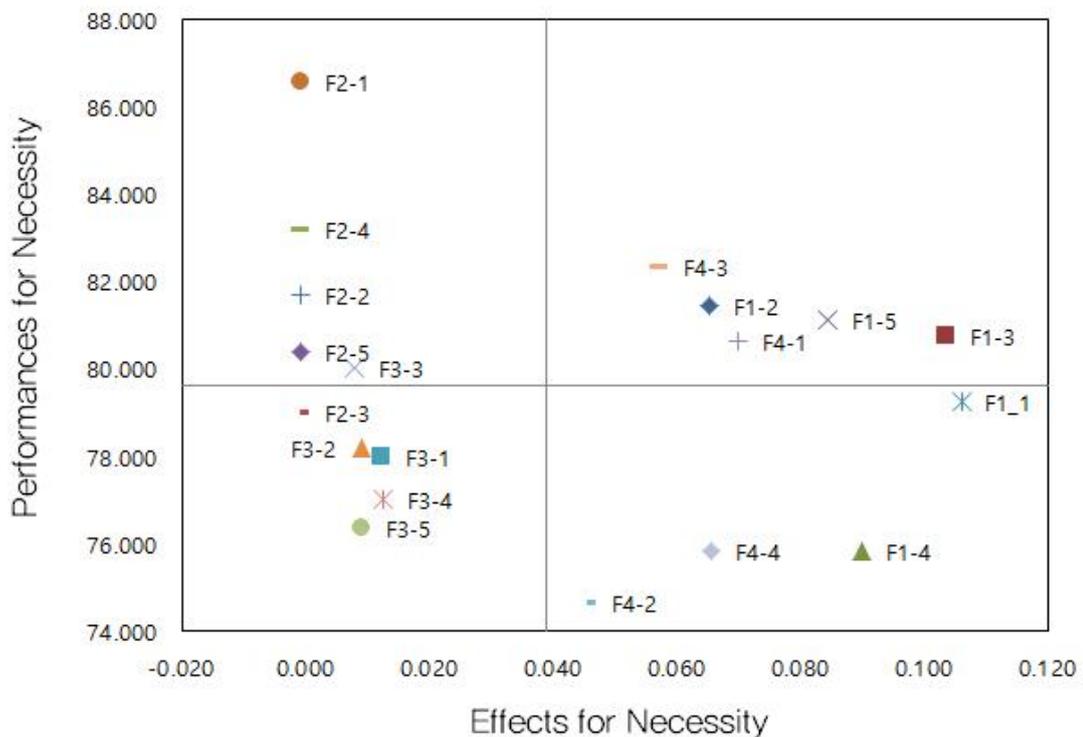
[그림 4-9]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Jeju)



이러한 우선순위 위치는 전체 및 금융관련 비금융 관련 그룹과도 상당히 다른 형태이며 다만 Factor 2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점은 다른 경우와 같은 점이라 하겠다. 즉 제주지역 거주자들은 하부시설 요인과 제도·정책 요인, 생활환경 요인을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비제주 거주자에 대한 비교 분석시 다시 하도록 하겠다.

제주지역 거주자의 세부 요인 전체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10]과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세부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1-4이며 그 다음으로 F1-1, F4-4, F4-2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Jeju)



그 이외의 요인들은 많은 수가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 거주자가 생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요인은 지자체의 금융서비스산업 추진의지이며 이는 다른 그룹과 달리 독보적인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금융업 관련 명확한 법체계와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조성, 적정수준의 부동산 임대료 등이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도가 높은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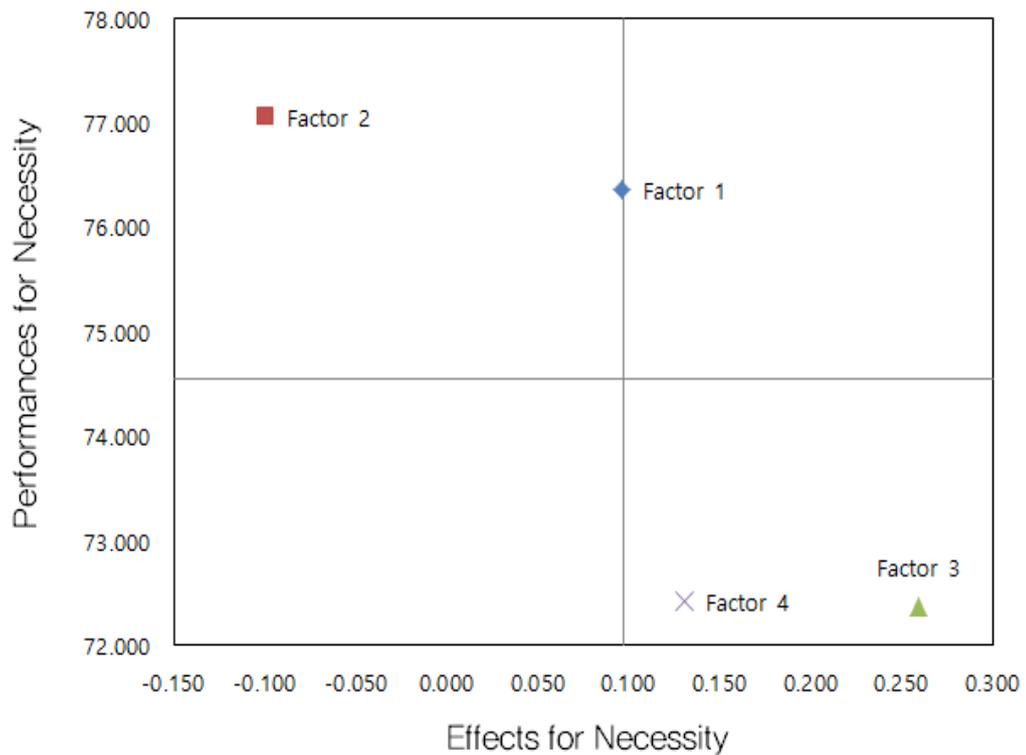
이 역시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다른 형태의 필요도 분포임을 알 수가 있으며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Construct Total Effects and Construct Performances(N/Jeju)

	Performances	Overall_Necessity
Factor 1	76.360	0.096
Factor 2	77.061	-0.100
Factor 3	72.376	0.259
Factor 4	72.426	0.131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에 대한 분석이다.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 수치는 〈표 4-12〉와 같다.

〔그림 4-11〕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N/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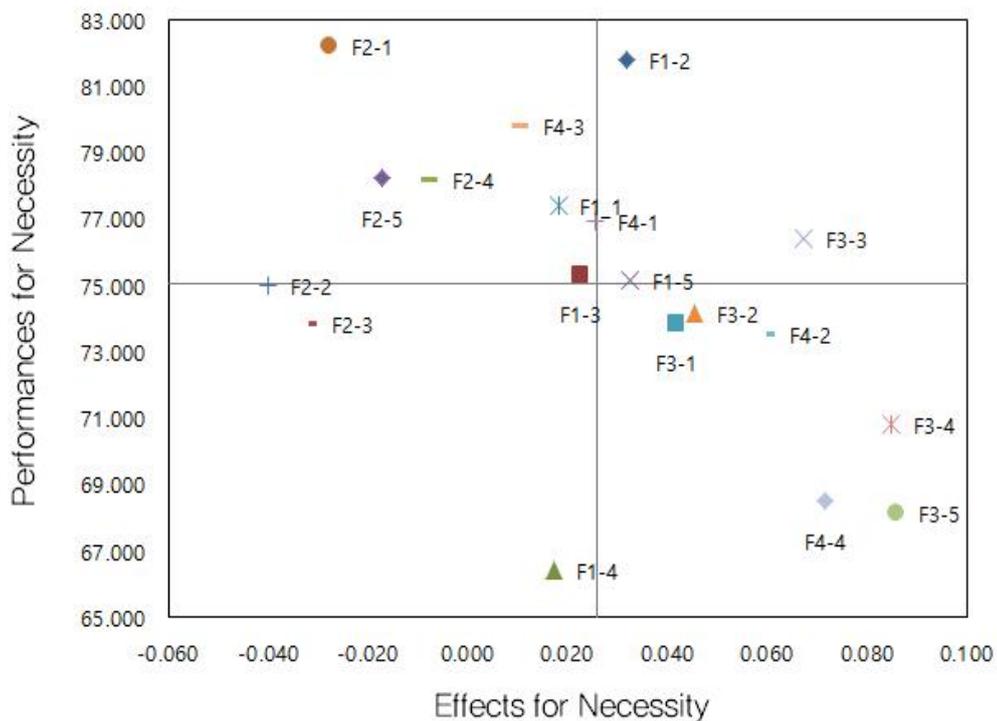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전체 요인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actor 3과 Factor 4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다른 두 요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른 그룹에서 볼 수 있는 우선순위 격차와도 비교되는 격차를 보여준다. 그리고 Factor 1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Factor 2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의 필요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정책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른 그룹이나 전체 분석에서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 제도·정책 요인에 대한 필요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12]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N/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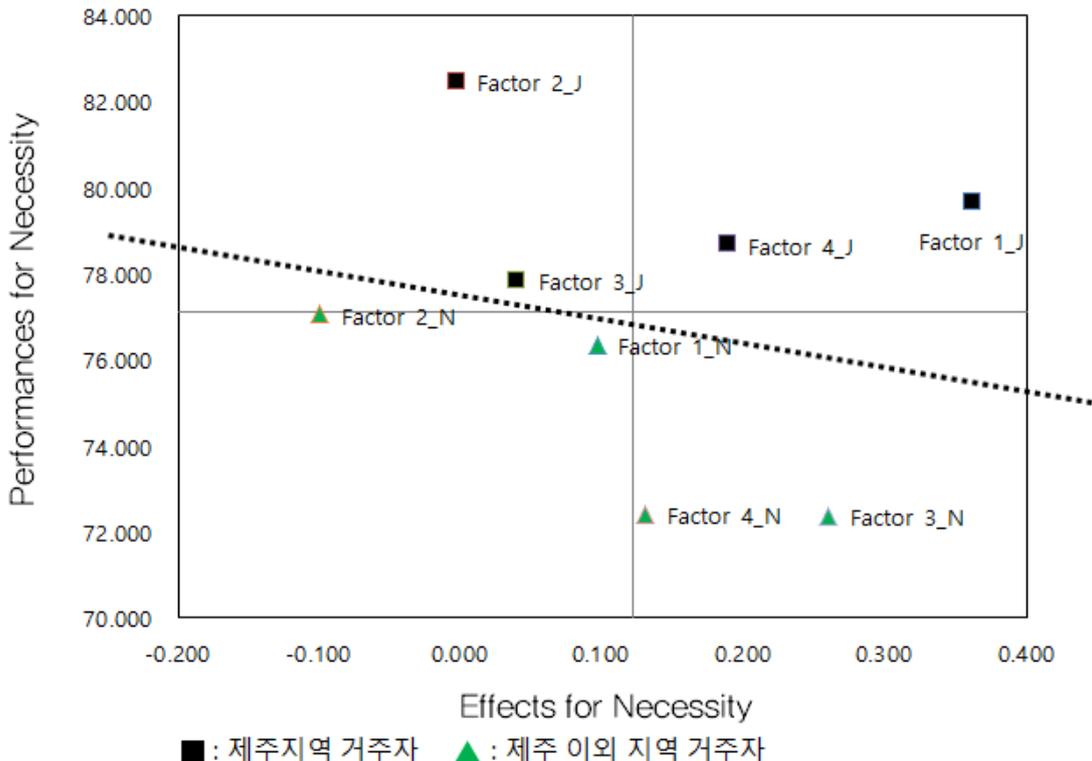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세부 요인 전체에 대한 IPMA 결과는 [그림 4-12]와 같다. [그림 3-4]에서 구분된 좌표평면 영역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체 세부 요인 중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F3-5, F3-4, F4-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F1-4, F4-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요인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영역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가 생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 산업 기반 구축 요인의 필요도는 적정수준의 물가, 쾌적한 자연환경,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조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세부 요인에 대한 필요도 분포는 제주지역 거주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며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Importance-Performance Matrix(Construct_Jeju : N/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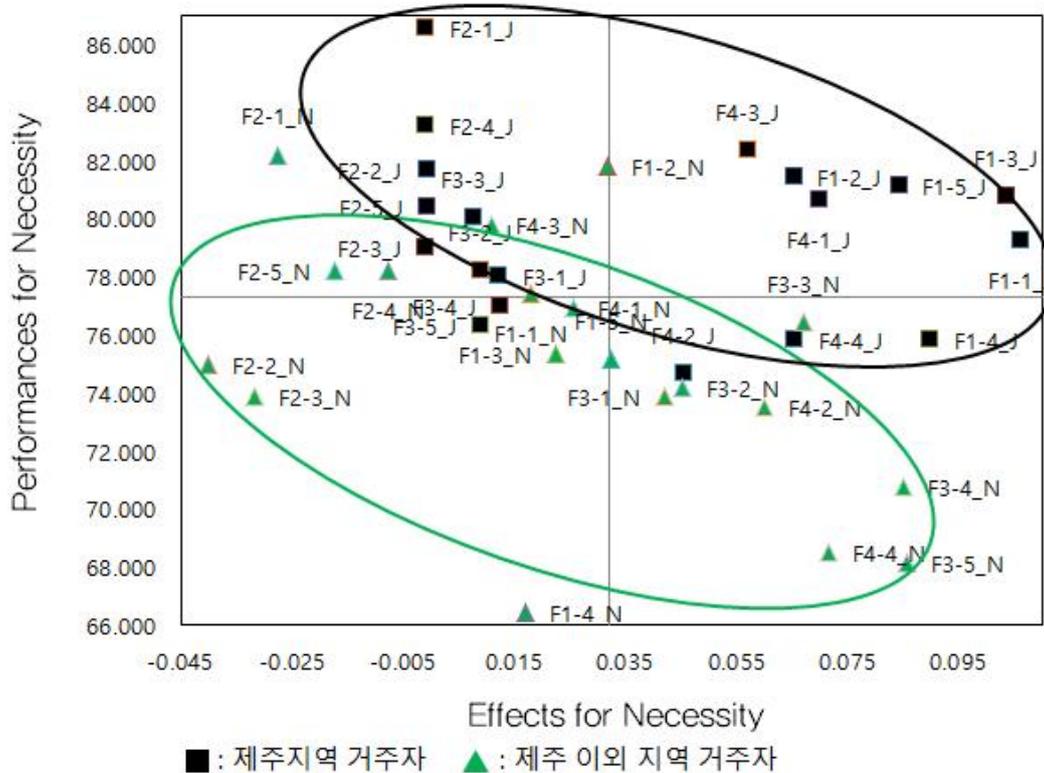


[그림 4-13]은 제주지역 거주자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으로 두 그룹의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좌표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의 필요도에 대하여 매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며 금융권 종사자와 비금융권 종사자 그룹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던 일부 공통적인 사항도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시각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가 여러 요인의 필요도를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요인에 대한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어서 세부요인에 대한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겠다. 세부 요인에 대한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요인별 분석결과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그림 4-14]와 같다.

(그림 4-14) Importance-Performance Matrix(Indicator_Jeju : N/Jeju)



제주지역 거주자의 경우 세부 요인들의 분포가 우측과 상단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경우는 좌측과 하단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하여 비교적 필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반하여 제주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요인의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다. 즉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간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의 필요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반대로 제주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전체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두 집단 간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3>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 차이분석 결과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Factor 1	등분산을 가정함	0.007	0.932	2.514	303	0.01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518	302.733	0.012
Factor 2	등분산을 가정함	0.558	0.456	2.963	303	0.00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965	302.958	0.003
Factor 3	등분산을 가정함	3.353	0.068	3.025	303	0.00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037	297.961	0.003
Factor 4	등분산을 가정함	0.0033	0.857	2.144	303	0.0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148	302.800	0.033

차이분석 결과에서 Factor 1의 경우를 살펴보면 F값이 0.007이고 유의확률값이 0.932이므로 $P > 0.05$ 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됨을 보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T값은 2.514, 자유도 303(전체 샘플수 -2)에서 양쪽검정의 유의 확률값이 0.012로 두 집단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간에 Factor 1의 필요도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Factor 2, Factor 3, Factor 4의 경우도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집단 간의 차이는 IPMA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분석결과 시사점

구성 요인에 대한 IPMA를 통하여 요인의 단순 필요 정도가 아닌 해당 요인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지 혹은 해당요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MA는 의미가 있다. 하부시설 요인의 경우 IPMA에 따르면 영향력이 낮지만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책 요인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 영향력 측정만으로 확인되지 못한 성능 요소가 함께 분석되면서 하부시설요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요인의 낮은 필요도가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전문인력이나 외국어 능력 등 인적자원요소가 중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인적자원요인은 실제 금융산업 기반 구축 필요성에 낮은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요인의 성능 면에서 충분히 갖추어져 있거나 이미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Wójcik(2015)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국제금융센터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참고할 만 하다.

이처럼 개별 요인이 단순한 필요도 분석이 아닌 IPMA를 통하여 중요도와 필요도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생활환경 요인, 제도·정책 요인과 더불어 하부시설 요인도 그 필요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그룹 간 비교 분석에서 금융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가 판단하는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의 필요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생활환경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인, 제도·정책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금융종사자의 경우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에 대한 필요도 판단에서 요인 간 차이가 명확하였던 반면 비금융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금융관련 종사자의 경우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에 대한 가치판단이 명확히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요인 간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비교 분석에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비교에서 볼 수 있었던 일부 요인의 공통점과 일부 요인의 차이점이 아니라 제주와 비제주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에 따른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필요도 판단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 간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IPMA를 통한 중요도 분석, 그리고 그룹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요인별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산업과 금융상품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산업이 주요 산업이 된다. 이러한 예는 국제자유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인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산업의 발전은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또한 도입 초반에는 종합계획을 통하여 관광, 의료, 첨단,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육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의료, 첨단, 금융 등의 분야는 그 성장이 미비하며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종합계획에서 육성 정책이 축소되거나 타 산업과 통합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 발견과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은 중요도-수행도 매트릭스 분석(IPMA)으로 그 연구 방법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를 개관하였으며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제금융센터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들 속에 나타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 마련 필요성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국제금융센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과 분류방법 그리고

구성요소가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제금융센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심분야라는 점이다. 즉 오랜 시간동안 연구되어온 하나의 연구주제인 동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이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은 정책적 선택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주변 환경의 도움이 특화 국제금융센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주요 특화 국제금융센터는 그 시작이 정책적 선택이었으며 성공여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국제금융센터의 도입과 성장은 크게 정책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시사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포커스를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없이 중단되었으며 제주지역 내 금융산업 발전이 미흡한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미실행의 결과라는 점이다. 금융서비스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정책 실행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내 미비한 금융서비스산업의 발전 상황은 이러한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제자유도시라는 위상과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인지도, 아시아 금융시장의 핵심인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장점 등 환경적 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정책적 요소의 부재로 인하여 금융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장에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을 추출하였고 구성요인의 개별지표 확정을 통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총 305개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IPMA에 따른 개별 요인 및 지표의 우선순위 필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데이터 그룹핑에 따른 비교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IPMA를 통하여 해당 요인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혹은 해당 요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환경 요인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제도·정책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이 그 다음 우선순위를 보였다. 하부시설 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에 비하여 영향력이 낮지만 IPMA에 따르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제도·정책 요인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PMA에 서는 단순 영향력 측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성능요소가 함께 분석되면서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요인의 낮은 필요도가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전문인력이나 외국어 능력 등 인적자원 요소가 중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인적자원 요인은 실제 금융산업 기반 구축 필요성에 낮은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요인의 성능 면에서 충분히 갖추어져 있거나 이미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Wójcik(2015)의 연구에 따른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국제금융센터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만 하다.

IPMA를 통하여 중요도와 필요도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생활환경 요인, 제도·정책 요인과 더불어 하부시설 요인도 그 필요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그룹 간 비교 분석에서 금융종사자와 비금융 종사자가 판단하는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의 필요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생활환경 요인과 하부시설 요인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인, 제도·정책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금융종사자의 경우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에 대한 필요도 판단에서 요인 간 차이가 명확하였던 반면 비금융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금융관련 종사자의 경우 금융산업 기반구축 요인에 대한 가치판단이 명확히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요인 간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T-검정을 통해 실시된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비교 분석에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비교에서 볼 수 있었던 일부 요인의 공통점과 일부 요인의 차이점이 아니라 제주와 비제주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제금융센터 구성 요인에 대한 지표들에 대하여 필요성보다는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제주지역 이

외 거주자의 경우 반대로 국제금융센터 구성요인에 대한 지표들이 충분하지 않고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두 그룹에 대하여도 T-검정을 통한 차이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행 결과 두 그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 간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기반 구축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IPMA 중요도 분석과 그룹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요인별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제 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국제금융센터 도입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금융서비스산업 성장의 단초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실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국제금융센터 구성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필요 요인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처음 설정한 연구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관광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에 대하여 환기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산업구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금융산업의 성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과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금융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원활한 해외투자 유치 및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의 활동은 관광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하게 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기반 구축 요인의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온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요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그동안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온 인적자원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차이는 한편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과 현재의 시각이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 혹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육성해야할 자원으로 보았다면 현재의 시각은 인적자원을 육성해야할 대상이라기보다 유치해야할 자원으로 보고 인적자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가장 큰 시사점은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본 금융산업 기반 구축에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실증분석에서 이루어진 요인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내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을 구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은 정책의 역할에 대한 고려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시사점은 제주지역 거주자와 제주지역 이외 거주자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국제금융센터 도입에 대한 명확한 시각차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요인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의 시각차는 확연히 드러났고 요인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이러한 시각차는 결국 국제금융센터 도입에 있어서 도입여부나 도입 방식, 우선순위 결정 등의 상황에 제주 지역 주민과 제주지역 이외 주민의 시각차가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에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시각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정책수립이나 검토에 있어서 이러한 시각차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조사 설계에서 연구 대상을 산업계 종사자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계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일반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견 분석보다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시각을 확보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전문성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일반 산업계 종사자와 단순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 비하여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연구의 의의에서 언급한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과 연구결과와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더불어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센터를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하였으며 더 나아가 실증분석에서도 이러한 분류가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세분화된 국제금융센터 개념이 설문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생각과 오히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분화된 국제금융센터의 제시가 그릇된 연구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인 점을 밝힌다.

더불어 IT기술 발달과 함께 오늘날의 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자본의 이동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동향은 국제금융센터의 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고찰이 본 연구에서는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는 금융전문가 혹은 정책담당자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국제금융센터 도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금융센터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대상을 샘플로 하거나 혹은 국제금융센터가 보다 널리 이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제금융센터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금융센터의 형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국제금융센터 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추어 국제금융센터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기춘. 1999. 국제자유도시와 통상·금융. 제주리뷰 - (5): 10-21.
- 강성윤. 2013. 글로벌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경쟁력에 대한 해외평가와 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 강영훈. 2015. 금융중심지 사례분석을 통한 울산의 금융도시 가능성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강철준. 2009. 역외금융센터에 관한 국제조세규제 발전과정과 전망. 역외금융연구 2 (-): 73-93.
- . 2008.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최적모형 설계방향. 역외금융연구 1 (-): 77-120.
- . 2001. 제3장 규제자유지역의 금융부문모형.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 (38): 53-93.
- 구본성. 2003. 제4장 외환 및 국제금융 : 국제금융 센터 비전과 실험. 기타보고서 2003 (1): 238-41.
- . 2002. 논단 : 국제금융센터 비전과 실험. 주간금융동향(중간) 11 (30): 2-5.
- 구용. 2009. 한국 내 국제금융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국제금융센터. 2014. 세계경제 동향 :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 2014 (8): 72-5.
- 김남형. 2007.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덕근. 1989. 부산지역경제의 문제점과 금융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민규. 2007.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비교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김병덕, 구본성 김진운. 2018.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한국금융연구원.
- 김선석, 변병설. 2013.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자족성 분석. 한국경관학회지 5 (1): 34-46.
- 김세진, Dominic Barton. 1999. 한국 금융의 선진화 전략-국제금융센터의 육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 11-104.
- 김수엽. 2012.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요인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김시환. 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영재, 박수남, 김진건. 2010.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발전전략. 지역사회연구 18 (3): 105-30.

- 김은수. 2007. 국제금융센터 지역 조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의웅. 2013.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정수. 2014. 금융세계화와 조세회피처에 관한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정환. 2003. 제4장 외환 및 국제금융 : 국제금융센터와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기타보고서 2003 (1): 246-50.
- . 2002. 논문 : 국제금융 센터와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주간금융동향(중간) 11 (35): 2-7.
- 김홍규. 2008.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희수. 2009.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노수연. 2012. '12·5규획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2012 (-): 1-10.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 재정경제부.
- 류지민. 2012. 제주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세계전략. 조세학술논집 28 (1): 63-96.
- 박광수, 임동순. 2018.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유럽연구 36 (4): 115-44.
- 박상수, 강철준. 2008. 역외금융센터의 금융시장 발전효과. 경제발전연구 14 (1): 55-93.
- 배근호. 2009.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경쟁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 (4): 2081-90.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018. 부산금융중심지.
- 손상호, 이재연. 2014.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Kif 연구보고서 2014 (5): 1-142.
- 신건권, 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 모델. 청람.
- 양오석, 민상기. 2009. 국제 금융 중심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분석: 경쟁우위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 (3): 77-116.
- 어윤대, 백주현, 강호진, 민상훈. 1988. 동경금융자본시장의 국제금융센터화가 한국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총 31 (1): 111-52.
- 연구원자료. 2013. 국제금융 이슈 : 국제금융도시 평가순위인 Gfci 및 ifcdi 발표. 주간 금융 브리프 22 (40): 18-9.
- 오대원, 남수중. 2013. 홍콩의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발전 가능성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5 (2):

215-41.

- 오수영. 2004.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오혜진. 2013. 중국 상하이의 금융허브 경쟁력과 향후과제.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 왕상. 2015. A study on the offshore financial market in hong kong.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광우. 2013. 한국·북한·중국의 경제특구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병윤. 2007. 글로벌 IB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요건.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동향 16(28).
- 이영신. 2006. 중국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의 비교.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이용욱. 2013. 한일 협력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 제도화. 국제지역연구 17 (2): 191-214.
- 이용탁. 2003.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종필. 2008.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벤치마킹. 부산발전포럼 - (112): 56-7.
- 이지연. 2011. 한국의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천우. 20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환경요소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민. 2009.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력 분석 및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이형욱. 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관한 주민의식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임선영. 2010. 여의도지역 금융중심지 활성화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장동한, 송중환. 2003. 동북아 금융센터 건설의 실현가능성. 관세학회지, 4(3), 185-212.
- 전희경. 2005. Financial hub or hermit?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정민웅. 2010.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평가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영록. 2008. 상하이: 국제금융도시 발전은 가능한가? 국제통상연구 13 (1): 155-77.
- 정해매. 2010. 상하이 푸동경제특구의 개발벤치마킹을 통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조재호. 2011. 부산금융중심지의 해양특성화 개발계획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조재호, 이한석. 2011. 부산국제금융센터 해양특성화 개발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5 (5): 445-54.
- 주상영. 2004.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금융발전 효과. 경제분석 10 (4): 56-80.
- 제주관광공사. 2019.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제주도.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 최규진, 고경일. 2013. 한국의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3 (4): 481-98.
- 최생림. 1994. 국제금융센터의 조건. 금융연구 8 : 105-32.
- 최승국. 2001. 한국관광금융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최승필. 2010.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14 (2): 417-48.
- 최훈규. 2002. 국제자유도시의 한국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편집부. 2010. 부산국제금융센터. 월간 Concept - (138): 128-31.
- 한미섭. 2008. 송도신도시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braham, J. P., N. Bervaes, A. Guinotte, and Y. Lacroix. 1993.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Bangor, Institute of European Finance, Research Monographs in Banking and Finance M93/1.
- Adams, JohnWong,Andrew Y.C. 2015. Hong kong and shanghai: Current and/or futur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Journal of Chinese Economic & Foreign Trade Studies 8 (3): 183.
- Bayramoglu, M. F. 2017.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after the 2008 -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Vol. 2018Physica-Verlag.
- Belyaev, M. K. 2016.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who benefits? Modernizaciâ, Innovaciâ, Razvitie 1 (3): 26.

- Bindemann, Kirsten. 1999. *The Future of European Financial Centres*. New York: Routledge.
- Boolaky, PranOmoteso, Kamil. 2016.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1 (6): 727.
- Chen, K. C. 2015. The ri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n mainland china. *Cities* 47 : 10.
- Chun Lok Kris LiSimon,Xiaobin Zhao. 2018. The ri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in bank-based and market-based financial systems. *Banks and Bank Systems* 13 (4): 161.
- Daqing, Yao. Yejing Huang. 2018.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and the competition over financial talents: Implications for shanghai. *Journal of Accounting & Finance* (2158-3625) 18 (8): 185.
- Dufey, G. and I. H. Giddy. 1978.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Englewood Cliffs, N. J. Prentae-Hall Inc,
- Gál, Z. 2015.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uring transition period and crisis. the case of budapest. *Studia Regionalne i Lokalne* 60 (2): 53.
- Gusev, V. S. BalabanovJu N. 2016.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s important cis and evrases countries intergation factor. *Modernizaciâ, Innovaciâ, Razvitie* 2 (4): 78.
- Hall, S. 2017. Rethinking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through the politics of territory: Renminbi internationalisation in london's financial district.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2 (4): 489.
- Ju. N. Gusev. 2016. Legislative and legal regulation of activity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Modernizaciâ, Innovaciâ, Razvitie* 3 (1): 125.
- Jones, G. 1992.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in Asia, the Middle East and Australia: A Historical Perspective* in Y. Cassis (ed.). *Finance and Financiers in European History 1880-19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05-28.
- Kindleberger, C.P.1974. *The Formation of Financial Centers: A Study in Comparative*

- Economic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Lai, K. P. Y. 2018. Singapore: Connecting asian markets with global fi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Meyer, D. R. 2018.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ina's contenders for global financial centre leadershipOxford University Press.
- Moosa, I. L. 2016. Determinants of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World Economy* 39 (12): 2074.
- Pran Boolaky, authorKamil Omoteso, author. 2016.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 What matter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1 (6): 727.
- Roberts, R. ed. 1994.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Concepts, Development and Dynamics*. Aldershot: Edward Elgar.
- Roberts, R. 2018. London: Downturn, recovery and new challenges-but still pre-eminentOxford University Press.
- Sascha KrausJasmin, SchmidJohanna Gast. 2018. Innovation through coopetition: An analysis of small- and medium-sized trust companies operating in the liechtenstein financial centr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Science and Applied Management* 12 (1): 44.
- Shankar, N. D. 2018. Structuring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ingapore, dubai, and india (GIFT)IGI Global.
- Slack. 1994.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s a Determinant of Improvement Priority. *IJOPM* 14,5
- Wang, J. 1.,2. 2016. The rise of singapore 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olitical will, industrial policy, and rule of lawBrill.
- Wang, Xiaoyang. 2019. The dynamics and governmental policies of Shanghai'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formation: A financial geography perspectiv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1 (2) (04/03): 331-41.
- Wong, Yui. 2012. A Study of Shanghai and Hong Kong 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 a review of their developments and attributable factors. Edinburgh Napier University.

- Wójcik, D. Knight, E. Pažitka, V. 2018. What turns cities into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analysis of cross-border investment banking 2000-2014.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8 (1): 1.
- Yıldırım, Tansu, and Andrew Mullineux. 2015.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istanbu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roject. Vol. 48.
- Young, S. N. M. 2016. Role of the criminal law in maintaining hong kong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Brill.
- Yu, C. 2015. Evalu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 center-periphery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5 (1): 129.
- Yu. N. Gusev. 2016. Development trend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Modernizaciâ, Innovaciâ, Razvitie* 3 (2): 107.
- Zhao, Xin, and Murat Karagoz. 2016. Potential of istanbul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 comparison with shanghai and dubai. THE 5th ISTANBUL CONFERENCE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통계보고서(<https://www.jeju.go.kr/open/stats/list/survey/2018.htm?act=view&seq=1092531>)
- 제주관광공사. 관광자료실(https://ijto.or.kr/korean/Bd/view.php?btable=pds&bno=279&pds_skin=&p=2&lcate=1)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BIFC비전 & 발전전략(<https://bifc.kr/content/content.php?mniid=38>)
- 싱가포르 통화청. 연차보고서(<https://www.mas.gov.sg/who-we-are/annual-report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19(<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ranking-2019>)
- Longfinance.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https://www.longfinance.net/programmes/financial-centre-futures/global-financial-centres-index>)

부 록

설 문 지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국제자유도시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본 논문의 실증연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모든 설문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설문지의 어떠한 항목도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신 귀하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10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정현규
jeonghk@jejunu.ac.kr 010-6318-9974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습니다.

* 1차 계획 : 2002년 ~ 2011년, 2차 계획 : 2012년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주요 국제도시*를 벤치마킹하여 금융업을 관광업과 함께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추진 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차 계획의 추진 전략으로 “금융서비스업 기능 강화”를 포함시켰으나 2차 계획과 수정계획을 거치며 세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은 현재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더블린 등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 제도/정책 요인

다음은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정책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정책 요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1 금융업 관련 명확한 법체계					
1-2 투명한 금융감독 체계					
1-3 우호적 투자환경					
1-4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1-5 지자체의 금융서비스산업 추진 의지					

질문 2 : 인적자원 요인

다음은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적자원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 요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2-1 금융에 대한 전문성					
2-2 외국어 구사 능력					
2-3 자유로운 인적자원 활용					
2-4 금융 관련 교육 수준					
2-5 적절한 급여 수준					

질문 3 : 생활환경 요인

다음은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생활환경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 요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3-1 금융에 대한 호의적인 지역의 인식					
3-2 학교 병원 등 수준 높은 생활 시설					
3-3 교통 통신 시설					
3-4 적정 수준의 물가					
3-5 쾌적한 자연환경					

질문 4 : 하부시설 요인

다음은 금융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하부시설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부시설 요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4-1 항공 이용의 편의성					
4-2 적정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					
4-3 IT기술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4-4 블록체인 허브와 같은 특구 조성					

질문 5

귀하의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금융산업 기반 구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질문 6

마지막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직업	① 회사원(금융 관련) ② 회사원(금융 이외)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기타
거주지	① 제주 지역 ② 제주 지역 이외

*****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the need to foster the financial industry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I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is thesis reviewed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the componen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omesti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ase and overse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ase. And this thesis reviewed the financial policies established in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Comprehensive Pla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I have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begins with a political choice. In addition, it confirmed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ffects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lthough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has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its status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its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and its geopolitical advantages as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lack of policy factors has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is thesis carried out IPMA for analysis of components for fos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IPMA, this thesis identified priorities for the need for configuration factors and detail factors. In addition, the thesis further performed a cross-group comparis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 the living environment are the highest priority. It also confirmed that the priority of institutional policy factors and infra-facility factors is high.

This thesis found that financial and non-financial employees differed in the priorities of factors in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groups. The thesis also confirmed that Jeju residents and non-Jeju residents hav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priorities of factors.